진리 평화 창조

외대학보

발행인 이 강 혁
편집인겸 주간 이 장 희
편집장 이 영 환
외대신문사(☎962-7128, 961-4151)
외대학보(☎961-4152, 0335-30-4112)
130-791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270-1
449-791 경기도 용인군 모현면 왕산리 산89
인쇄인 김 영 수

창간 1955년 4월11일 【주간】
등록번호제 다253호

THE OE DAE HAGBO

제586호 1992년 9월 8일 (화)
제3종 우편물(가)급인가

학생주임 발언 파문… 학내 '폭풍전야'

총학 편집부장, 학생회 탄압 음모 폭로 자필서 공개

오늘 공청회 통해 공개적으로 진상규명 예정

- 1992년 9월 5일 (土) 저녁 8시 20분 경
- 인천 중구 항동 7-27 라이프 A.P.T 9동 905호
- 방문자 : 학생처 권 주임과 그 부인
- 진술자 : 조 성경 (불어과 8P)

저는 2년 외대사랑 총학생회 편집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보궐선거를 통해 새로 들어선 총학이 학교발전에 관한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데에 크게 동감하고, 외대 학우의 일원으로 학교발전에 더한 손수는 면정이 있었기에 지난 7월 중순 경에 총학에 결합했습니다. 본딴 만 점도 학생회에서 편집일을 맡아 보면서 2학기 사업과 학교상황을 배워고 있던 중, 지난 9월 5일 저녁 8시 20분 경에 권주임이 불시에 저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학생처 권주임은 본인 아버지의 학교 제자라는 친분관계에 있으며, 이미 9월 4일 저녁에 저의 아버지를 만났다나 5일 날 저의 집에 찾아 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저의 방에서 권 주임과 약 11시까지 그전부터 자질 등 문제, 제반문제들에 관한 학교측 입장에 관해 이야기를 토론했습니다. 권주임은 본인에게 학생회 활동을 그만 두었으면 좋겠다는 심중을 피력했으며, 이번 외대사랑 총학생회 활동은 9월이면 끝나리라고 예상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번 법대 공개 질의서의 일부 내용은 자신이 법대장에게 직접 이야기한 내용이며, 외대 사랑 선봉대의 자료도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학생처는 1층에 있지만 학생회의 머리 위에서 내려다 보듯이 학생회에서 일어나는 일, 계획하는 사업, 하는 말도를 모두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학생회의 정책위원들(일일이 이름은 거론하면서)과 빡 상남 총학생회장까지 잡혀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음흉하게 외대발전을 위해 일하는 학생회원 사업이 시작되기도 전에 특정사건과 관련시켜 와해시키려는 의도가 있지 않을가 생각됩니다. 또한 권주임은 학생처는 학생회의 각종 사업에 대해 대처할 준비가 나름대로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저는 권주임이 만나서 이야기한 내용을 모두 off the record로 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1992. 9. 7 조 성경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산하 편집부장을 맡고 있는 조성경(서양·불어4)양이 총학생회의 활동과 관련 △총학생회가 곧 와해된다 △총학생회장이 잡혀가게 될 예정이라는 내용의 이야기와 함께 총학생회를 그만두라는 권유를 조양의 부모와 친분관계를 맺어온 본교 서울캠퍼스 학생처 권희정(학생담당)주임으로부터 받은 일이 뒤늦게 알려져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이번 사건은 조양의 아버지인 조모교수(인천교대 재직)의 제자였던 권주임이 그동안 학생회에서 일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활동해 오던 조양의 집에 찾아와 1차로 부모에게 이 사실을 알린 후 활동을 못하도록 권고했으며, 2차로 지난 5일(토) 조양의 집을 방문하여 조양에게 학생회 활동을 그만둘 것과 재단과 관련하여 조사작업을 벌이고 있는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의 활동 상황을 모두 알고 있다는 발언을 함으로써 비롯됐다.

이러한 권주임의 권유에 대해 조양은 그동안 집에서 학교 수업 이외의 활동을 제약받아오다 어제(7일) 이 사실을 자필서와 함께 공개하였다.

이러한 권주임의 발언은 첫번째로 권주임이 평소 친분을 갖고 있던 조양의 부모를 염려하여 귀띔하기 위해 찾아온 것과 둘째로 조양을 통해 총학생회와 관련된 사안을 듣기위해 찾아왔을 두가지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하지만 권주임이 직권을 넘어선 발언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이를 지시한 대학측 혹은 재단측의 인사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을 낳고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총학생회는 즉각 이번 지술서와 관련된 권주임을 총학생회에서 만나 박상남(서양·노어4) 총학생회장과 원치승(정책·정외4) 부총학생회장이 배석한 가운데 사실여부를 물었으며, 권주임은 조양의 자술서 내용중 '학생회의 정책위원들과 총학생회장이 잡혀가게 될 것이다'라는 내용만을 일부 부인하였을 뿐 다른 부분은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학생회는 사실여부가 밝혀짐에 따라 어제 4시30분경 학생회관 여학생 휴게실에서 '전체 비상확대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후 이사건의 대책을 논의하였다. 이자리에서 박상남 총학생회장은 "조양의 자필서에도 나오지만 이번 사건은 단순히 권주임 개인의 행동으로 보기에는 상당부분 의문점이 있다"며 "그동안 어느 총학생회 보다도 본교 재단부분을 조사해온 이번 총학생회에 대해서 재단측에서 '생사에 관련된 사안임을 공언한 바가 있어 더욱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학생측의 비상학대운영회의 이후 박상남 총학생회장은 학생처장 한형곤(이태리어) 교수와의 면담을 통해 이번 사건을 숙의했다. 이 과정에서 한형곤 교수조차 아직 권주임을 만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 소재파악이 어려워 이번 사건은 빠른 시일내에 명확한 해답을 얻기가 더욱 힘들게 됐다.

이후 총학생회는 이번 사건을 오늘(8일) 오전11시 노천극장에서 일반 학생들과 함께 '공청회'를 통해 공개하여 전위를 밝힐 예정이며, 공청회 자리에는 그동안 노골적으로 학생회의 외대발전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주요 간부의 명단을 자신에게 넘겨달라며 총학생회 간부들에게 요청했던 한 인사에 대해 공개할 예정이여서 귀추가 주목된다.

또한 다른 때와는 달리 총학생회장 및 정책위원들의 이름이 명확히 거명된 상황이고 '잡혀간다'는 표현을 씀에 따라 공청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대학당국의 답변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번 총학생회와 관련된 사건이 확산된 것은 단순히 본교의 특수사항으로 파악될 부분이 아니다. 특히 84년 이후 정부의 입김이 강소된 반면 재단에 의한 간접통제가 실시되어 왔으며, 재단은 학내의 문제가 확산될 경우 항상 공권력을 보호막으로 사용해왔음을 봤을 때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영환 본보편집장〉

빈의자

정권의 나팔을 벗어 던지며

▲80년대 뉴스의 첫머리는 이렇게 시작된다. '전두환 대통령은 오늘…'

87년 이후의 뉴스 역시 '노태우 대통령은…'으로 시작된다. 그리고 민자당의 대통령 후보가 결정된 올해는 '김영삼 민자당 총재는(전에는 대표)…'으로 시작되고 있다.

물론 이것은 절대적인 수치가 아니라 우리나라 방송이 어떤 수준인가 하는것을 단적으로 암시하는 얘기다.

흔히들 언론을 사회의 감시기능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언론이 정치권력으로 부터 아무런 외압을 받지 않았을때의 얘기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언론의 현주소는 정치권력의 외압뿐아니라 말 그대로 '정권의 나팔수'가 되어 있다. 그것은 지금이라도 당장 TV 수상기 앞에 혹은 신문을 펼치면 확연히 드러나는 일이다. 그런데 이러한 '정권의 나팔수'를 거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MBC노조 파업이 그것이다.

▲MBC 노조파업의 이유는 간단하다.

첫째, 공정방송을 할 것과 둘째, 제작년 PD수첩과 관련되어 해고된 동료직원의 복직요구이다. 너무나도 당연한 요구임에도 회사측은 한마디로 '안된다'였다.

공정방송을 하자는데 왜 거절을 할까하는 의문이 생길수도 있지만 그것은 굳이 회사측 논리를 들지 않더라도 이미 명쾌한 대답이 준비되어 있다. '언론은 통치기구의 일부'라고 말한 손주환 공보처 장관의 말이 그것이다. 이러한 논리는 손장관의 입을 빌어 역대 정권 및 현정권의 언론관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은 80년 광주에서 대학살극이 진행될 때도 단 한줄의 기사, 단 한마디의 코멘트라도 광주 시민을 폭도라고 매도해야 했고 민주화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투쟁을 좌경용공 세력의 불법시위로 몰았으며 지난해 본교 6·3 투쟁 역시 마귀 새끼, 패륜아들의 폭력이라고 국민들을 속여야 했다. 그것만이 부도덕한 정권이 지탱되는 길이었기 때문에 현정권은 언론은 통치의 수단이라고 스스럼없이 자부하기에 이른 것이다.

▲억압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그 억압을 뚫기 위한 투쟁이 있다.

이번 MBC 파업투쟁 역시 공정보도를 탄압하는 정권에 맞선 방송 민주화 투쟁의 시작인~것이다. 그 물꼬는 이미 지난 89년 KBS 방송 민주화 대투쟁으로 시작되었으나 정권의 물리적 탄압과 대국민 연대투쟁의 부족으로 실패하였던 경험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실패해서는 안된다. 그것은 바로 대선을 앞둔 정권교체기에 방송이 진정으로 국민의 눈과 귀와 입이 되는 국민의 방송이 되느냐와 함께 이번 투쟁에 따라 우리 언론이 더이상 국민을 기만하는 언론이 아니라 참다운 민주언론으로 서는 중요한 갈림길에 서있기 때문이다.

〈박현숙〉

지·면·안·내

3면: 양캠 학자의 물꼬 '자곡동 이전'
4면: 시리즈 세번째-대선을 앞둔 합법정당 건설의 문제점
5면: '김낙중 간첩사건'의 본질
8면: 기획좌담-대학 언론 탄압의 본질
9면: MBC 노조파업 현장취재
10면: 정경 유착속에 멍들어 가는 학원

진리 · 평화 · 창조

한국외국어대학교 『外國學綜合硏究센터』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는 산학협동—

지구촌 어디에서나
한국인의 기상을 떨치며 활약하는
外大人의 모습,
바로 우리 대한의 자랑입니다.

국제화 시대를 이끌어 갈 인재를
배출하여 세계적인 종합대학교로서
발돋움하고 있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외대는 세계 각 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정보를
종합, 분석, 제공함으로써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할 지역학 연구기관을 설립합니다.

세계적 수준의
「外國學綜合硏究센터」의 건립을 위해
外大發展後援會는
모금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역사앞에 떳떳한 外大人은
한국의 자랑이라는 긍지와
국제문화 교류와 발전에 기여한다는 자부심으로
21세기를 향해 오늘도 힘차게 전진합니다.

韓國外國語大學校 發展後援會

사 설

한가위에 돌아봐야할 것들

한가위가 다가왔다. 외대인들의 가벼워진 발걸음에서 느낄 수 있듯이 한가위는 즐겁고 가슴 설레이는 명절임에 틀림이 없다. 대부분의 외대인들은 곧 청명한 가을하늘과 시원한 바람이 있는 고향을 찾을 것이며, 오랫만에 모인 가족·친지들이 둘러앉아 함께 송편을 빚으며 이야기꽃을 피울것이다. 한가위가 기다려지는 이유는 이렇게 흩어져 있던 가족과 친지들이 함께 모여 그동안의 그리움을 달랠 수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그러나 한가위가 되면 더욱 가슴아픈 사람들이 있다. 부모와 가족이 보고 싶어도 찾아가지 못하는 사람들과, 명절이 되어도 얼굴을 대할 수 없는 아들·딸을 가진 부모들이 바로 그들이다.

우리 주위로 잠깐 눈을 돌려 보자. 우리가 고향을 그리며 마냥 들떠 있을때, 그 기쁨을 함께 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을 생각해 보자. 노동부의 발표에 따르면 9월2일(수) 현재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노동자가 1백89개 업체의 5만7천55명으로, 체불금액은 9백12억2백만원에 이른다고 한다. 임금체불 업체는 휴·폐업으로 치닫고 있고, 이 과정에서 많은 하청업체들이 도산의 길을 밟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자들의 생활또한 말이 아니다. 1년 이상 임금이 체불되어 빚더미에 올라 앉은 노동자들은 한가위가 되어도 고향에 내려갈 엄두를 내지 못하며 말을 동동 구르고 있다.

이들 뿐만이 아니다. 우리 가까이에는 6·3투쟁 이후 철창안에 갇힌 몸이 되어 가족과 친구들에 대한 그리움을 속으로만 삭이고 있는 많은 동료들과 선·후배들이 있다. 그리고 보름달만큼이나 탐스러운 송편을 빚으면서 그것을 사랑하는 아들에게 먹일 수 없는 안타까움에 눈물을 적실 많은 어머니들이 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한가위라는 명절은 일상 속에서 잠깐씩은 잊고 지내왔던 아픈 현실을 다시금 속속들이 생각나게 하는 가슴아픈 날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기쁘고 즐겁게만 생각되는 한가위를 맞으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이것이다. 정부의 대책없는 산업정책이 낳은 제일노동자들, 6공화국이 위기정국을 모면하기 위해 만들어낸 6·3구속자들, 그리고 그들의 부모…, 이들이 빼앗겨 버린 한가위의 의미를 되찾기 위해 그들의 괴로움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하려는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이다.

양심선언 예방책은

지난달 31일 관권부정선거의 실체가 한준수 전 연기군수에 의해 폭로된 후에도 관계된 고위당국자들은 책임있는 언행없이 발뺌 궁리에만 몰두하고 있다. 어떻게하면 들통난 치부를 더이상의 확신없이 정리할 수 있을까하는 궁리속에, 고작 나온다는 발상이 한 군수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이다. 찧소 들출행동을 해 온 문제가 많은 인물이니, 민선군수 출마를 앞둔 이미지 구축을 위한 발언이니 등으로 몰아세우면서 여론의 눈치를 살피고 있고, 수뇌관련자·관계공무원에 대한 조속한 조사를 재촉하는 국민들에게 겸찮은 수사착수는 켜녕 한씨가 소환에 응하지 않기 때문이라 핑계를 댄다.``

이러한 '눈가리고 아웅'식의 시도에는 아랑곳하지 않는 관권선거에 대한 비난여론이 날로 높아가고 있고 늑장수사에 질책의 화살이, 책임자 인책에 수천만의 눈이 집중되고 있는 만큼 여권내에서도 전·현직 내무장관에 대한 인책론을 조심스럽게 거론하고 있다.

민자당내부에서는 이상연 전내무장관에 대하여 인책을 할 경우, 전국적으로 관권선거를 행했음을 인정하는 것이 되고 대선을 앞두고 안기부장을 교체할 때 겪을 위험부담으로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동호 내무장관은 한 군수가 양심선언을 할 것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도 이를 예방하지 못하고 파문을 일으킨 것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다. 참으로 '뭐 묻은 자가 뭐묻은 자' 나무라는 모습이다.

인책론 추이를 볼때 국민들은 답답하기 그지없다. 그물뿌리처럼 방사형으로 얽히고 설킨 선거비리라서 하나를 제대로 들추어 내고 보면 줄줄이 엮어 나오기 마련이지만, 폭로된 관권비리의 주무자와 비리를 척결하고 사태를 수습할 자리에 앉은 사람이 동일인이다보니 당연한 귀결일 수도 있다.

국민들은 바라고 있다. 눈먼 소 쥐잡기식의 무성의한 해결책보다는, 그리고 양심선언하기 전에 입막음을 제대로 안했다고 문책하는 임시방편보다는 근본적인 예방책이 필요한 것이다.

양심선언 예방책은 바로 깨끗한 정치, 공정한 선거뿐이다. 건강한 정치인이 빛을 받고 공명선거의 풍토가 이 땅에 뿌리내릴때 관권선거비리는 퇴치될 것이다. 다가오는 대통령선거에서는 전국민의 이름으로 양심선언이 필요없을만큼 먼저 안나는 선거를 강제해 내자.

'장로 대통령 만들기' 온당치 못하다

최근 기독교 일각에서는 장로를 대통령 만들자라는 바람이 일고 있다. 주로 보수기독교 교단을 중심으로 이나라 대통령은 교회의 장로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설교라는 방법으로 또는 어떤 암시적 방법으로 교회 주변에 나돌고 있다.

이는 그전까지 보수기독교 교단에서 시국이 어려울 때마다 정교분리를 말하던 교리를 분명하게 역행하는 신앙태도이다. 중립이 그들의 신앙을 고귀하게 유지하는 방법이라고 외쳐더니 이제는 정치에 신앙인을 세워야 한다는 교리로 바꾸었나 보다. 그러면 장차은 집사여야 하는가? 혹은 온 국민이 기독교인이어야 하는 그야말로 기독교 지상주의가 되어야 한다는 말인가?

김영삼 민자총재는 모교회 장로이다. 그가 독재타도를 외칠때, 교회에서 부흥설교를 하며 자신은 대통령에 출마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신앙적 자세를 여러번 보여주었다고 한다. 그러더니 어느덧 삼당야합을 실천하고(?) 이동통신의 기만적 반납을 계기로 개혁이니, 도덕적 정부니 하는 것을 설교하고 있다.

이러한 장로대통령 만들기가 소아적 신앙자세인지 아니면 알지 못하는 힘의 강요에 의한 것인지는 알 수가 없다.

하기야 어느시대에 종교가 정치적이지 않았는가? 엄격하게 정치와 종교를 나누려고 노력하더라도 불교는 승병을 만들었고, 유교는 올바른 도덕정치를 세우려고 노력했으며 무엇보다도 동학은 외세와 당당히 싸우는 구민(救民)의 종교가 아니었는가? 초기기독교는 팔로마와 반로중적 유대교에 대항하기도 하였다. 당연히 종교는 정치와 떨어질 수 없다. 아니 이미 역사속에 포함된 사건으로 역사적이다.

그러나 지금의 보수기독교단에서 벌지는 모습은 순수한 신앙적 자세도 아니고 올바른 정치적자세도 아니다. 반기독교적인 행동을 그리고 반민주적 행동을 하는 것이다. 인간사랑의 실천을 민주화 요구를 통해 국민모두가 외칠때 "종교는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며 외면하던 자세를 스스로 참회하여야 할 때인 것이다.

이땅의 민주화와 통일을 위해 실천신앙을 보여주고 지금은 옥살이 하는 양심수들의 기도소리를 들어야한다.

〈김대휘 인문·철학3, 기독학생회〉

어쩌다 대통령이 된 자와 결코 대통령이 될 수 없는 자

—G.샘통—

백지 대자보

주제: 노태우와 김영삼의 차이

태우는 보통사람, 영삼이는 순수 민간인이라나?
—J.Y.E—

노태우(군발이 출신), 김영삼(군대기피자 출신) 즉 군과 민의 결합(환상적 독재 하모니)
—독신자—

뱃은 자와 빼앗을 자
—서민—

이미 양가죽 벗은 노씨 성의 늑대와 아직은 양가죽 벗지 않은 김씨 성의 늑대
—양씨 성의 늑대—

정통 노가리, 야합 노가리
—CS 89—

똑같은 놈들인데 무슨 차이/
—다른놈—

노군은 군바리의 단순 무식함, 김씨는 기회주의의 변덕이 다르다.
—김영삼·노태우 통합비서—

오십보 백보 피차일반 아닐까
—백오십보—

차이는 무슨 차이야/ 하나도 없어. 얼굴도 비슷해지는데
—성형외과 의사—

6공과 7공의 차이가 될 것 같지만 결국은 대동소이
—공공—

노태우는 막판 뒤집기에 성공했으나 김영삼은 가능성이 희박하다.
—아람 낙타—

노태우는 자기 총리를 외대에 보냈지만 김영삼은 절대로 안 보내겠지? 혹시 모르지…
—정외과 귀염둥이—

흡산의 소리

8월 25일자 흡산의 소리 '이것만은 지켜졌으면'에 답변

외대발전의 문제는 크게는 캠퍼스의 이전문제와 학교행정의 문제 그리고 휴게공간과 자판기의 문제까지 고쳐져야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영어과 강영학우가 제기한 후문개방과 교학과와 학적과의 근무시간 문제는 학교측에 공문을 보내어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휴게시설문제는 도서관 앞과 사회과학관 앞에 휴식공간을 마련할 예정이며, 후문쪽과 도서관옆의 경우 지금 바닥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판기의 문제는 작년 6·3이후 계약권이 총학생회에서 총무처 후생과로 바뀌었습니다. 계약권이 바뀐 이후 음료의 질이 떨어지고, 고장난 뒤 수리를 빨리하지 않는등 학우들이 많은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사무실에서 온갖 차를 끓여 드시는 처장님에게 해결을 맡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학교의 경우 외부업자에게 입대를 주고 있는데 구조적으로 학내에 발생한 이윤이 외부로 유출된다는 문제 역시 안고 있습니다. 왕산이나 타 학교의 경우 대학생활협동조합을 건설해서 자체적으로 자판기와 식당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윤을 다시 학내에 재투자하고 있습니다.

복지위원회에서는 단기적으로 자판기 입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할 것이며 학교측에 관리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생활협동조합건설을 위한 준비를 통해 학내이윤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다시 학교로 재투자될 수 있는 체계를 건설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학우들이 느끼시는 문제점은 아무리 사소하더라도 주인된 의식으로 복지위원회나 총학생회로 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26대 외대사랑 총학생회 복지위원회〉

독자만평

묘책이 따로 있나

〈박신일 서학·독어1〉

지성인의 기본예의

매일 학교에서 자유롭게 행동하다 어쩌다 집에 있게되면 갑갑하고 불편한 일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이러한 일들은 학생들이 학내에서 어느 누구에게도 구애를 받지 않는 자유스러운 행동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가령, 쓰레기 처리문제, 대자보 처리, 또는 술자리가 파한 후의 행동들을 보면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아침 일찍 학교 등교를 하는 길에 전날 술자리로 더럽혀진 교정을 보면 기분이 안좋다.

그 반명에 학교에서도 문제점이 많다고 본다. 학내에 쓰레기통이 얼마나 있나 살펴보자. 살살이 뒤지며 다녀봐도 군데군데 별로 배치된 곳이 없다. 이러한 점들은 하루속히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지적이 나오지만,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

지난 5월달 본교 직원노조파업을 돌이켜보면서 학생뿐만 아니라 교수·직원 모두 '이곳이 공부하는 곳인가'하는 의문점을 가졌으리라본다. 그러나 지금도 이 생각은 마찬가지다.

이제 사회전반에서도 생활공해에 대한 인식도 높아졌다. 최고의 지성인으로서 학교를 사랑하는 마음에서도 이제는 절제된 생활의 모습을 보여야 할때가 아닐까.

〈이광형 서양·영어1〉

소아적 모습은 버리고 신념으로 살렵니다

—고향 스승님께 올리는 글

뜨거웠던 여름은 이제 슬슬 물러날 채비를 하고 제법 쌀쌀한 저녁바람이 캠퍼스를 맴도는 9월입니다. 선생님, 건강은 어떠신지요? 선생님 계신 고등학교의 신문반 활동을 위해 학보를 보내달라시는 편지를 받고 그 동안 몇번 안되지만 보내드린 학보는 미약하나마 어느정도 도움이 되었는지요? 매번 편지는 올리지 못하고 학보만 보내드리기 죄송해서 이렇게 학보의 한 면을 채워서 보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펜을 들었습니다. 대학 생활은 잘 하는지 언제나 염려해주시는 마음에 보답하고자 2학년 2학기는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수를 포기하고 막상 대학에 들어와서는 많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저도 후기대학컴플렉스에 빠져서 지난 1년반동안은 한마디로 '방황과 표류'의 나날이었습니다. 그래서 2학기에는 무엇을 할 것인가로 고민하고 있을때 써클 선배이자 과 선배이었던 분이 부총학생회장으로 선출되어 알고 지내던 많은 형들이 총학생회에서 일하게 되었고 선배님들의 권유로 총학생회 산하 기구인 '외대발전학생추진위원회'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다소 생소했고 접할 기회가 없었던 일이라 어렵게 느껴졌던 학생회일들을 아무 개념없는 제가 할 수 있을까하고 걱정했지만 막상 들어와보니 외발추에는 기구가 뭔가 경험이나 사상적인 것을 요구하지 않는 그저 외대인으로써 모교인 외대를 사랑하는 학우들이 모인 기구라는 것을 알고 별 부담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외발추에서 일하게 되면서 학우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학생회 학우들을 보면서 많은 것을 보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밤을 새워가며 대자보를 쓰고, 토론하고, 고민하며, 자료 수집을 위해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행사를 치루느라 보이는 데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며 제 자신만을 위해 고민하고, 걱정했던 소아적인 제 모습이 부끄러웠습니다.

또, 여러가지 학교내의 문제점과 모순에 맞서 신념을 굽히지 않고 소신있게 행동하는 학생회 간부들의 모습에 아무 생각없이 살았던 제 자신에 대해 많은 반성도 하게 되었습니다. 또, 그러한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서 새로운, 많은, 좋은 사람들과 여러 이야기도 할 수 있어서 내성적이고 소극적이던 제 성격도 많이 고칠 수 있었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외발추라는 조직이 올해 생기게 된 조직이라 아직 체계도 잡히지 않았고 업무 분담도 되지 않아 비효율적인 면도 있지만 모두가 열심히 일하여 앞으로 상설기구화되어 학교의 발전을 위해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기구가 되었으면 합니다. 혹, 학보에 이 글이 실려 학우들중에 평소에 학교발전을 위해 일하고 싶으셨던 분이 읽게 된다면 언제나 에어컨바람이 시원한 외발추사무실로 찾아오시길 기대합니다.

선생님께 말씀 드리다 보니 고3때 추억이 많이 생각납니다. 추석이 다가오는군요. 순천에 내려가면 친구들과 함께 한 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유성준 정과·정외2〉

외대학보 제2기 모니터요원 모집

비둘기 기자의 정성이 보태져야

외대학보 비로소 는 완성됩니다

학생회관 2층에 자리한 학생기자실에 오셔서
지원서를 작성하세요.
모임을 추석지나고 9월 15일
늦은 5시에 가집니다.

외 대 학 보

비둘기 기자?
비둘기가 취재를 하나?
비둘기기자는 외대학보 모니터요원을 말합니다.

모니터요원이 하는 일?
외대학보를 아끼고 사랑하는 일
매주 빠짐없이 학보를 읽고 함께 평가합니다.

내가 될 수 있을까?
물론입니다. 열의를 가지고 건강하게
생활한 자신있는 외대인이면 누구나 환영입니다.

난 언론을 잘 모르는데?
한달에 한번 비둘기기자가 모여
올바른 언론관에 대해 공부도 하고 토론도 합니다.

기자라고 말해도 돼?
명예기자로서 함께 취재하고 기사도 씁니다.
아무도 강요하진 않고 스스로의 결의에 따르죠.

서울·용인 학자의 물꼬 '자곡동 이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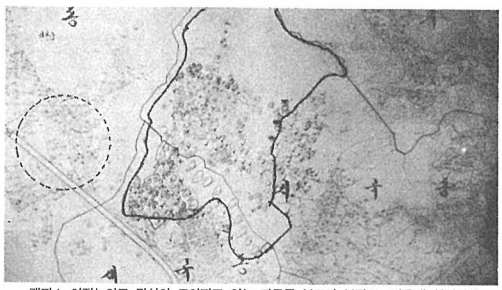
중장기 발전안 앞두고 우려의 목소리 커

양캠 연대와 학내구성원 공유로 재단 견인이 바람직

서울·용인캠퍼스가 술렁이고 있다. '93년 중·장기발전안 발표'라는 중대시안을 놓고 학생측에서 이의 계획안에 포함될 내용들을 대학당국에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수들도 이와 관련된 부분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지난 8월 21일(금) 용인캠퍼스에서 열린 '전체교수간담회'는 이러한 교수들의 움직임을 반영하고 있다. 대학당국은 방중에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에서 계속 제기해왔던 '자곡동 이전안'을 놓고 자곡동의 현재의 상황과 이전의 어려움을 내용으로 하는 슬라이드를 상영했다. 하지만 모교수가 질의한 "그렇다면 대안이 무엇인가. 구체적인 중·장기 발전안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물음에 대학당국 책임자들은 아무런 답변을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동문들 또한 본교의 발전에 대한 우려의 소리를 나타내고 있다.



캠퍼스 이전논의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자곡동 부근의 부적도. 가운데 실선안에 본교 재단부지가 포함되어 있고 왼쪽 점선안에는 새로 밝혀진 토지가 포함되어 있다.

자곡동으로의 이전은 왜 제기되는가

자곡동 토지는 주로 토지개발제한구역으로 설정된 임야와 잡종지, 나대지가 혼재되어 있다. 이곳은 세곡동 토지와 함께 87년 부터 '학원민주화 합의사항'을 통해 매각에 대한 의견이 계속 개진되어왔고 또한 재단측의 매각 확답—구체적으로 87년 10월14일 박승준 재단전무이사의 답변이 있었을—도 있었다. 하지만 올해에도 이의 실행은 요원한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단은 단계적으로 24만여평에 이르는 자곡동 토지를 매입하여 '이의 자금을 어떻게 충당하였는가'라는 의문점을 낳고 있다. 이에대해 학생측은 "재단이 등록금을 이용하여 재단의 토지를 늘리고 이를 사유재산화하려 한다"는 주장과 함께 "자곡동 토지매입 목적을 학교발전용으로 명기하여 이를 조세혜택 및 토지매입에 드는 비용의 절약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있다.

자곡동 이전안은 서울캠퍼스의 교육환경 개선이 제기되면서 부각되기 시작했다. 이는 현재의 서울캠퍼스 환경을 고려해 볼때 더이상의 학교발전을 꾀할 수 없다는 의견에서 출발한다. 이에대한 학생측과 대학당국, 재단의 의견은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대학당국은 96년부터 점차적인 용인캠퍼스 이전을 실행한다고 밝혀왔으나 실질적으로 이의 실행은 믿을 수 없는 계획안이 되고 말았다. 이 계획안은 용인지역이 분당선의 개통으로 교통이 편리해질 것이라는 것과 수도권 지역의 활성화 바람을 타고 중요 지역으로 부각될 것이라는 예상 속에서 제기된 부분이다. 그러나 학생측은 현재의 용인캠퍼스 환경요건을 고려해 볼때 이 방안은 실속이 없는 상황이며 재단의 투자나 앞으로의 계획을 충분히 고려하더라도 2천년 이전까지는 어렵다는 주장이다.

학생측은 자칫하면 학교의 위상을 전락시킬 위험성이 있는 용인캠퍼스로의 통합이전보다는 용인캠퍼스의 독자적인 발전을 통해 종합대학으로의 면모를 더욱 갖출 수 있는 방안으로 자곡동으로의 인문계열 통합이전과 용인캠퍼스의 활용을 제기하고 있다.

이 방안에 대해 용인캠퍼스 총학생회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양캠퍼스의 학자들은 한 방향을 향하고 있다는 것이 옳은 지적일 것이다.

자곡동 이전은 가능한가

그렇다면 자곡동으로의 이전은 현실성이 있는 대안인가를 다시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대한 학생측의 의견과 재단측의 의견을 종합하여 보면 반대의견으로는 '자곡동의 토지 대부분이 토지개발제한구역이다'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학생측의 조사에 의하면 자곡동(세곡동 일부 포함)은 법에 적용되지 않는 땅이 상당부분이고 대모산부근의 토지는 상업용이나 주택용이 아닌 공공시설 및 교육시설일 경우에는 융통성 있게 쓰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써 학생측은 서울대, 서강대, 고려대 등의 개발제한구역내로의 교육공간 확장의 예를 들고 있다. 또한 내곡동에는 이미 새 연기부 청사가 들어서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학생측의 주장 이외에도 재단이 그동안 주장해 왔던 '토지개발억제법'은 내부적인 모순을 갖고 있다. 법으로 묶여 있어 매각이 어렵다는 것과는 달리 재단은 그동안 계속해서 이 부근의 토지를 매입해 왔고 매입하지 못한 토지의 경우 주변의 땅을 먼저 매입하여 고립시키고 이를 헐값에 매입하는 전형적인 토지매입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내곡동 부근의 10여만평의 재단토지가 더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재단측의 주장을 일축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다.

두번째로 지적되고 있는 성남의 '서울비행장'의 경우 주변 주민들은 "얼마전 부터 비행장이 이전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는 말을 전한다. 또한 자곡동 부근은 수서지구 개발과 수도권 팽창으로 비행장의 이전이 불가피한 상황이고, 주택가들이 계속 들어서고 있다는 것이 고려돼야 할 것이다.

앞으로의 진행 방향

먼저 대학당국과 재단의 명확한 공개 답변이 있어야 한다. 이를 대학당국이나 재단측에서 회피할 경우 학생측의 주장은 더욱 거세게 제기될 것이며 교수, 직원, 동문 등 본교를 구성하는 이들에 의해 고립될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학생측의 학자방향도 철저하게 대중 중심적이어야 한다. 학생들의 동의없는 학자부쟁은 성과없이 끝나고 만다는 사실을 항상 염두해 둬야 할 것이며 이의 수행에 있어서도 87년과 같이 준비되지 않은 재단퇴진 요구보다는 더욱 철저하게 재단을 견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서울·용인캠퍼스의 모든 학생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의대발전 중·장기 발전안'을 마련하기 위해 각 캠퍼스 총학생회의 연대와 이의 공유들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대학부〉

자곡동 이전비와 충당방법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작성

항목	소요경비
추가토지매입비 (사진의 V표시 참조)	평당 40~80만원×3만여평=1백60억원
도로 신설 및 부지정지 작업	약80억원(서울캠퍼스 중앙도로, 운동장 재정비 작업에 6억원 소요됨과 비교)
지상 5층 지하 1층 건물 20개동	1개당건물공사비평균40억×20개=8백억원
기타(이사비용 포함)	1백60억원
총 계	1천2백억원

*조달방법은 서울캠퍼스 부분 매각으로 시행(이문동 평당 가격은 평균 4백만원이므로 2만8천평의 가격은 1천9백20억원으로 추산됨)

초점

용인캠퍼스 대운동장 아래에 본교운행과 관계없는 차량들이 24시간 주차해 놓고 있어 미관을 크게 헤치고 있다. 이곳은 117번 노선 신설로 본교가 경기·대원여객측에 제공한 주차장이나 13번 버스 등 본교에 운행하지 않는 예비차량들이 개강초부터 진을 치듯이 주차하고 있으나 대학당국의 개선의지는 없는 듯 하다

〈이현재 기자〉

서울총학, 외대사랑학교 개최

캠퍼스 이전등 학자투쟁 방향 설정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와 외대발전 학생추진위원회(외발추)가 공동으로 주최한 '제1기 외대사랑학교'가 지난 1일(화)부터 3일(목)까지 대학원 210호에서 개최됐다.

이번 '외대사랑학교'는 현재 본교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좀더 구체적으로 알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학생들과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다.

개막날인 1일(화)은 '학내 제세력간의 관계와 재단에 관하여' 들째날은 '80년대 이전의 외대상황과 현재를 비교하고 동문선배들의 활동상을 통해 외대인 상을 정립한다'라는 주제로 강의가 있었다. 마지막날인 3일(목)에는 박상남(서양·노어 4)총학생회장이 최종적으로 현재 진행중인 '외대발전'사업에 대해 전반적인 기조를 설명했다.

첫날 강의에서 강사를 맡은 총학생회 정책국장 박승표(서양·독어 1)군은 비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재단의 족벌경영체제를 공개하고 "교육재단으로서의 철학도 없이 수익사업에만 눈이 먼 재단은 우리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것에도 그들의 태도를 바꾸려들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한 박군은 제단이 지금까지 학원의 3주체인 교수, 학생, 직원의 분열을 조장했던 일과 반재단인사를 제거하려가지 했던 사건을 공개하고 "재단의 족벌경영체제가 존재하는 한 외대의 발전이란 있을 수 없다"고 역설했다.

재단비리 공개에 대한 강의에 이어 들째 날에는 본교 동문인 박재창(정외과 68학번) 숙명여대 행정학 교수를 초청,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외대사랑학교 3일째 강의에서는 현재 가장 주목되고 있는 '캠퍼스 자곡동 이전'문제의 현실적 가능성 정도와 전망에 대해 총학생회장 박상남군이 강의를 진행했다. 이날 강의에서 박상남 총학생회장은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관심의 촛점인 캠퍼스 이전에 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하고 "한 학교에 중·장기 발전 계획안이 부재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전제하면서 "현재의 상황에서 자곡동으로 캠퍼스를 이전하는데 질문들이 되는 것은 그런 벨트가 아니라 재단의 정태적이고 무성의한 태도"라고 강조했다. 또한 대 재단 투쟁의 방향에 대해 교수, 학생, 직원, 학부모, 동문의 연대가 가장 중요한 관건임을 역설하면서 "중구난방식의 투쟁을 지양하고 총분한 정당성을 확보해 명분있게 싸워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강의직후 질의 응답시간을 통해서는 법대학생회에서 공개질의한 내용에 대해 각 문항별로 답변을 하고 이해를 돕기도 했다.

이번 외대사랑학교에는 연일 많은 학생들이 참여했는데, 강의도중 재단비리에 대한 날카로운 풍자와 비판에 대해 박수로 답하는 등 뜨거운 열기를 보였다. 또한 강의가 끝난 후 많은 질문이 쏟아져 나와 밤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에 반해 몇가지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는데, 그 한가지는 간부들사이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 지지 못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학자투쟁의 가장 중요한 대원칙을 통일단결이라고 보았을 때 이 문제의 해결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또 들째날 박재창교수의 강의 내용이 전반적으로 '외대발전'에 제기되는 사항들, 특히 교육환경문제에 있어서 크게 촛점을 벗어나 이후 동문들에게 외대상황을 정확히 선전하는 일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김영화 기자〉

제10회 외대학술상 논문모집

본보는 올해에도 학술상 논문을 모음니다. 올바른 학술풍토의 정립을 위해 여러분들의 소중한 땀이 담긴 학술논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응모자격:본교 재학생
◎모집분야: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등 3개부문(원고 80매 이내)
◎심사위원및 상금:추후 발표
◎제출처:외대학보사(서울:학생회관 203호, 용인:학생회관 212호)
◎마감일:11월 10일(화)
※단, 제출된 원고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외 대 학 보

세계로 꿈을 펴는 젊음

서 승진 : 90년 7월 독신파견 지역전문가제도로 멕시코에 파견되어 그들의 독특한 문화와 생활습관 그리고 언어를 약 1년 동안 배우고 돌아왔다. 지금은 삼성전자 컴퓨터부문 PC사업본부에서 중남미지역 수출을 담당하고 있다.

독신파견 지역전문가제도

지역전문가가 되기 위해 멕시코시티에 발을 내디딘 것은 지난 90년 7월이었다.
해발 2240m의 고원위에 세워진세 인디오문화와 혼혈문화라고 불리우는 메스티조문화가 뜨거운 태양 아래서 하나가 되어 열기를 발산하고 있는 멕시코—
그곳에는 그 열기만큼이나 뜨거운 축제가 하루도 거르지 않고 벌어지고 있었다.
뜨거운 기후 때문인지, 너무나 풍부한 천연자원 때문인지 때로는 답답하게 느껴질 정도로 모든일을 천천히 즐기며 하려는 멕시코인에게는 축제 즉 파에스타가 생활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그들의 흥겨운 라틴음악 뒤에는 아즈텍, 마야문명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 뿌리깊은 자부심, 자존심이 있어 스스로의 생활습관이나 문화양태를 그대로 고수하려는 면이 있기도 했다.
한가지 예로 우리의 장에 해당하는 띠안게스가 멕시코시티를 비롯해 멕시코 전역에서 나흘에 한번씩 열리는데 이 시장에서 물건을 살때는 꼭 지켜야 할 작은 것이 하나있다.
절대로 서두르거나 재촉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서두르거나 재촉을 하면 아예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거래가 이루어지더라도 손해를 보기 쉽기 때문이다.
이 시장에서 물건을 팔거나 사고 싶으면 이 시장의 페이스와 꿈에 따르라는 식인 것이다.
북미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한 길목이라고 할 수 있는 멕시코—
그곳을 통과해내기 위해서는 같은 미주대륙에 속해있으면서도 나름대로의 독특한 문화와 상거래습관을 형성하고 그 방식대로 살아가려는 그들을 이해하고 있어야만 했던 것이다.
지금은 동아와 중남미지역의 수출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마다 힘이 되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나의 가장 큰 재산인 그 때의 그 경험인 것이다.

삼성이 국제화시대를 선도할 인재를 키우고 기술의 국제화,제품의 국제화를 위해서도 사람의 국제화가 필수불가결하다는 인식으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독신파견지역 전문가제도 - 업무없이 자유롭게 현지경험과 지식만을 쌓아 자연스럽게 해당지역의 전문가가 되는 이 제도에는 매년 400명씩의 3년차 신입사원이 선발되어 독신파견되고 있으며 3년후에는 약 2,000명의 지역전문가가 양성됩니다.

인재와 첨단기술의
三星

대선을 앞둔 합법정당 건설의 문제점

글싣는 차례

1. 87년 이전까지의 합법정당과 통일전선운동의 교훈
2. 87년 국민운동 본부에서 92년 전국연합 건설까지 전선질서 재편논쟁
3. 대선을 앞둔 합법정당 건설논쟁의 비판적 검토와 이후 민족민주운동의 방향

김 영 수
〈서울 민주통일민주 운동연합 정책위원〉

합법정당건설 논쟁의 배경과 과정

합법정당 문제는 88년 4·26총선에 운동진영 일부가 '민중의 당'과 '한겨레민주당'이라는 이름으로 출범하면서 제기되었다. 그러나 소수의 일시적인 선거참여였고 제도권 진출에도 실패해서 관심을 불러일으키지는 못했다. 이후 합법정당 문제가 공식적으로 제기되고 검토된 것은 민족민주운동의 정치적 구심이었던 '전민련' 내에서 제도정치와 민족민주운동의 관계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면서부터다.

그러나 전민련은 합법정당논쟁에 휘말려 해분열하고 만다. 우선 89년 공안통치의 한파가 몰아닥치는 가운데 독자정당 결성을 주장했던 일부는 전민련을 사퇴하고 창당준비에 들어갔다. 그리고 90년 1월 3당 야합에 의한 민자당이 탄생하자, 독자정당 건설에 반대하면서도 야권통합(=민주연합당)을 위해서 정당사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일부는 90년 3월 전민련 대의원대회에서 정당사업에 대한 안건이 부결되자 이에 승복하지 않고 전민련을 탈퇴함으로써, 지도부는 분열된 것이다.

논쟁의 초기에 합법정당운동을 주장하는 근거는, '대중조직이 많이 생겨났으며 대중운동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정당이 필요하다' '그동안 제도야당의 행태에 실망한 대중들은 진보적인 정당을 요구하고 있다' '비합법운동 만으로는 변혁을 이룰수 없으며 합법정치공간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것 등이다. 여기에는 그동안의 운동방식에 근본적 수정을 가한 새로운 전략노선을 추구하는 경향과, 전술적 차원에서 합법정치운동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경향이 혼재되어 있다. 이는 각각 '즉각적인 정당건설론'과 '민주연합당론'으로 표현되었지만 현실적으로는 기존의 운동과 분리되어 합법정당활동을 지향한 점에서는 마찬가지다.

합법정당운동을 반대하는 경우에도 차이는 있는데, 합법정당건설에는 찬성하지만 현재는 역량과 조건이 안되서 시기상조라는 견해와 '합법전술'은 필요하나 합법정당을 통한 변혁운동은 우리 사회에서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두가지 모두 현재 변혁운동을 이끌어가는 전략단위는 비합법영역에 존재할 수 밖에 없으며 합법정치운동은 전술적 차원일 을 강조한다. 따라서 지도력과 대중운동역량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합법정당운동으로 나갈때 이는 '선거혁명'이라는 환상을 가지게 되고 필연적으로 개량화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것이다.

결국 합법정당 문제는 정권교체의 실패와 운동의 분열을 경험하고 난 뒤에도 대중운동을 고양시킬 지도력이 부재한 가운데 지배세력의 단합과 재야운동권 고립화 기도가 점증하는 분위기를 배경으로 하여 제기된 것이지만, 이러한 주장은 '변화에 너무 민감해서 문제해결을 다른 데서 찾는다'는 지적과함께 외세지배하의 우리사회성격이나 주체역량을 고려하지 못한 주관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외세지배하에서는 경제적 잉여가 상당부분 외세로 흘러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치영역에서도 민주세력의 몫은 줄어들고 공정한 경쟁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다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합법정당건설쪽으로 독자적인 행동을 보임으로써 운동의 분열을 가져왔고 이러한 양상은 새롭게 확산되는 노동자·농민·교사·학생 대중조직의 기존 재야지도자에 야당의 의원직 사퇴를 계기로 평민당, 민주당, 통추회의 3자의 야권통합논의로 발전하게 된다. 그러나 결국 야권통합은 실패하게 되어 통추회의는 평민당, 민주당으로 영입되거나 재야에 잔류하면서 각개약진하는 모습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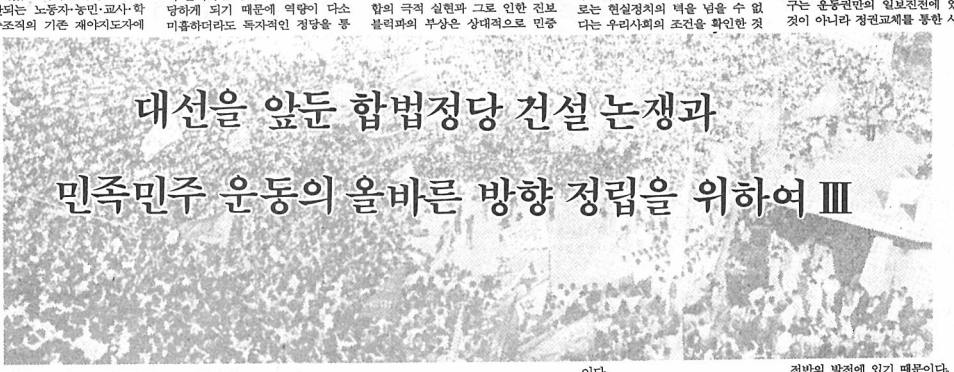
이와 같이 독자정당을 주장하는 민중당세력과 민주연합당을 주장하는 진보블럭파는 제도정치권에서 운동진영의 입지를 강화하자는 취지면에서는 비슷하지만, 그 방법에서 차이가 있었다. 즉 진보블럭은 "현재 운동진영의 역량은 독자정당을 건설할 만한 수준이 안되기 때문에 우선 야당내에 역량을 배치하여 입지를 강화한 이후에 독자정당을 건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반면에 독자정당론은 보수야당은 민주화를 이룰수 없을 뿐 아니라 운동진영이 일단 보수야당에 들어가면 생각과는 달리 이용만 당하게 되기 때문에 역량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독자적인 정당을 통해서 민주연합당이나 독자정당이냐는 사소한 문제이며 현실적으로 나타난 합법정당운동 자체가 가지는 한계 및 오류가 보다 큰 문제라는 것이다.

민중당 경험은 보수·혁신 구도에 입각한 '독자적 정치세력화'로는 현실정치의 벽을 넘을 수 없다는 우리 사회의 조건을 확인한 것

한편 독자정당과 민주연합당 중에서 민주연합당을 주장한 그룹은 실질적으로 야당에 개별적으로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민족민주진영의 합법정당논쟁 및 그 실험은 민중당에 촛점이 맞춰질 수 밖에 없었다.

91년 9월의 신민—민주 양당통합의 극적 실현과 그로 인한 진보블럭파의 부상은 상대적으로 민중당의 위축을 가져왔다. 민중당 간부 중에서도 야당통합이 불가함을 장담하고, 민주화를 바라는 많은 국민이 기대를 건 야권통합에 대해 냉소적인 입장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총선을 앞두고, 민중당은 새로운 전기를 맞는다. 그것은 국제적으로 소련의 위기와 국내적으로 사노맹과 같은 급진세력의 퇴조를 맞아 합법운동의 역할이 부각되고, 때마침 노동운동에세력 및 지식인 사이에서 비합법 전위당 노선을 폐기하고 합법정당 노선을 선택하면서 민중당과의 통합을 이루게 된 일련의 흐름이다.

그러나 민중당이 92년 3·24총선에서 법적 해체를 당함으로써, 87년 백기완후보 지지그룹에서부터 민중의 당, 진보정치연합을 거쳐 민중당으로 연결되는 독자적인 민중정당의 실험은 좌절되었다. 반면에 야당내 진보블럭은 의회진출에 성공하면서 제도권에서의 입지를 강화시켰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가 운동진영에게로 흡수되지 못하는 것은 운동의 분열로 인해 정치적 구심이 없고 제도권 활동과의 조직적 결합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민중당의 경험은 보수—혁신 구도에 입각한 '독자적 정치세력화'로는 현실정치의 벽을 넘을 수 없다는 우리사회의 조건을 확인한 것이다.



합법정당이나 비제도권 정치조직 건설은 전국연합이 주도하는 국민회의가 정권교체를 위한 자기 몫을 다할때 올바른 전망 가질 수 있어

합법정당건설의 선행조건

88년 총선, 91년 기초광역의회선거, 92년 총선을 거치면서, 특히 민중당의 좌절로 독자정당운동은 실패의 경험을 갖게 되었지만, 정당건설 움직임은 소위 '독자적 정치세력화'를 표방해온 민중회의, 진보정당추진위, 민중전영단일정당추진위, 전국노동단체연합 등 4개단체 대표자들이 지난 7월 3일 발족한 '민중후보 추대와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민중연대('민중연대')를 중심으로 계속되고 있다. 합법정당찬성론자들 사이에서는 아직도 합법정당이 지도조직이나 전술단위이냐, 대선을 앞두고 창당할 것인가 대선이후에 창당할 것인가, 계급정당인가 국민정당인가 하는 질동에서 약간의 이견들이 존재한다. 하지만 이러한 논쟁은 부차적인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합법정치활동을 조직할 수 있는 운동세력의 역량수준과 현시기 정치역학에 따른 운동의 목표가 무엇인가 하는 문제로 결심되대한 신뢰를 급격히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했다.

아무튼 합법정당 문제는 논쟁을 벗어나 새로운 실험단계로 접어들었다.

민중당 실패의 교훈

전민련 분열 이후 기존정당추진그룹과 힘을 합쳐 조직된 '민중정당건설을 위한 민주대연합 추진위원회(민연추)에서 독자적인 진보정당 건설을 주장하는 세력은 민중당 창당으로 나갔다. 또 한분류는 야당내의 진보블럭 형성을 주장하면서 '범민주통합추진정당추진회의(통추회의)'를 결성한다. 그리하여 당시 여야의 경색국면에서 빚어진 민중의 정치세력화를 추진해 가면서 보수 야당과는 사안에 따라 협조해갈 수 있다"는 논리이다. 이러한 차이로 야권통합에 대해서 진보블럭파가 적극적이었던 반면 독자정당파는 소극적 내지 방관적인 태도를 취했다.

여기에서 보다 중요하게 지적되어야 할 점은 야당으로 들어가거나 독자정당 창당을 추진한 합법노선이 모두, 시기와 방법을 둘러싼 초기의 합법정당건설논쟁과정에서 자주 지적되었듯이 합법정당운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대중적 기반이 취약하고 운동세력의 합의도 없는 상태에서 분열적인 행태를 보였다는 것이다. 즉 당시의 조건으로 봐야 할 것이다.

정권교체를 위한 범민주 세력의 단결로!

그러면 운동진영의 조직적 과제는 무엇인가? 우선 대선을 앞두고 운동진영에 일대 쇄신이 필요한 것은 작은 차이를 극복하고 하나로 전반의 발전에 있기 때문이다.

민족민주운동에 있어서 합법정치영역이 보다 중요하게 인식되는 것은 당연하다. 또 운동의 합법영역이 확대되는 것은 그동안 민족민주운동의 성과이기도 하다. 문제는 운동의 합법적 영역을 확대한다는 것이 반드시 즉각적인 정당건설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그리고 지금 당장 합법정당으로 승부를 걸기에는 역사적 경험으로나 현재 운동의 역량으로 볼때 시기상조라고 판단된다. 즉 합법정당건설 자체에 대해 원칙적으로 반대하지 않더라도 지금은 그것을 가능하게 할 힘을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 그렇지 않다면 조합원 없는 노조나 학생들의 지지없는 학생회와 마찬가지로 무력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민족민주운동에 있어서 합법정치영역이 보다 중요하게 인식되는 것은 당연하다. 또 운동의 합법영역이 확대되는 것은 그동안 민족민주운동의 성과이기도 하다. 문제는 운동의 합법적 영역을 확대한다는 것이 반드시 즉각적인 정당건설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그리고 지금 당장 합법정당으로 승부를 걸기에는 역사적 경험으로나 현재 운동의 역량으로 볼때 시기상조라고 판단된다. 즉 합법정당건설 자체에 대해 원칙적으로 반대하지 않더라도 지금은 그것을 가능하게 할 힘을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 그렇지 않다면 조합원 없는 노조나 학생들의 지지없는 학생회와 마찬가지로 무력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권교체를 위한 범민주 세력의 단결로!

그러면 운동진영의 조직적 과제는 무엇인가? 우선 대선을 앞두고 운동진영에 일대 쇄신이 필요한 것은 작은 차이를 극복하고 하나로 대표되는 정치적 조직적 지도구심을 마련하는 것과 국민대중으로부터 신뢰를 얻어나가는 것이다.

운동진영은 첫째, 조직적으로 87년 이후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자주적 대중조직들과 정치조직들이 결집되어 있는 전국연합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합법정당문제는 전국연합에 가입해 있지 않으면서 전국연합의 위상을 대중조직연합체로 규정하고 정치적 지도조직으로서 합법정당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거꾸로 된 사고이다. 전국연합의 정치적 지도력이 미흡하더라도 전국연합은 해방 이후 지금까지 전체운동의 성과를 계승하고 변화된 상황에서 새롭게 운동질서를 재편한 전략적 중심조직이다. 따라서 합법정치운동은 전국연합운동이 지도역할이 아니라 보조역할을 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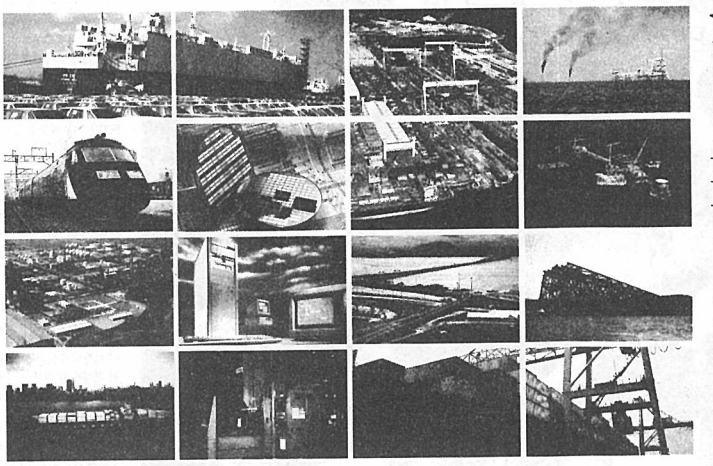
둘째, 전국연합의 외연으로서 모든 민주세력이 결집하는 '국민회의'를 구성해서 정권교체를 위한 위력적인 범국민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국민회의는 87년 6월항쟁 때의 '국민운동본부'나 91년 5월투쟁 때의 '범국민대책회의'와 비슷한 위상을 가진다. 그런데 이번 국민회의는 국본이나 대책회의의 경우처럼 대중투쟁의 고양기에 급조된 것이 아니라 미리부터 운동방향 및 역할 등을 논의하면서 목적의식적으로 만들어가야 했다. 국민회의를 둘러싸고 민주당의 참여를 전제로 해야 하느냐 아니면 민주당과의 관계는 나중에 다룰 문제냐, 조직간 연대를 중심으로한 협의체냐 대선방침과 같은 중요한 정치적 사안을 신속히 결정할 수 있는 조직이냐는 등의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9월 4일 일단 국민회의가 발족된 상태에서 앞으로 그 역할은 전국연합의 입장과 단결 정도에 따라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이지만, 대선을 앞두고 국민회의는 일시적인 공동투쟁 조직이 아니라 정권교체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이후 수권능력을 갖춘 대체 세력의 모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전국연합이 주도하는 국민회의가 정권교체를 위한 자기 몫을 다할 때, 합법정당이나 비제도권 정치조직(혹은 정당)건설을 전망할 수 있다. 운동을 실천하고 단결해나가는 노력없이 "전국연합이든 국민회의든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따로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는 식은 실질적인 힘을 얻을 수 없는 것이다.

또한 합법정당 문제는 이미 합법정당 그 자체가 아니라 민족민주운동의 조직적·정치적 노선 전반의 문제로 되고 있다. 그리고 대선을 앞둔 지금 운동진영은 독자후보를 내야하는가 아닌가 하는 문제를 놓고 동일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서 운동진영이 입장의 차이만을 확인하고 이를 증폭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견을 받아들여, 공동의 실천을 결의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때다.

HYUNDAI
우리의 現代 세계의 現代

금년 外貨획득 목표
120억 달러
"착실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밖에서 벌어 안을 살찌운다

수출만이 우리의 살 길 — 現代는 수출을 제1의 과제로 삼고 지구촌 곳곳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추진력과 창조적 의지로
국가경제발전과 함께 성장해 온 現代
우리 現代는 국가 번영과 국민의 복된 삶을 위하여
수출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
밖에서 벌어 안을 살찌우는 경영전략을 추구해 왔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現代는 상품과 건설·해운 용역수출로
올해 외화획득 목표 120억 달러를 달성하기 위해
지구촌 곳곳에서 땀흘려 일하고 있습니다.

現代

외대논단

이희옥
〈본교 중국어과 강사〉

'두개의 한국과 하나의 중국' 추구한 한·중 수교

중국, 대만의 분리독립운동과 군비증강 차단 카드

현정권, 대선을 앞둔 포괄적 득표 전략과 북한고립 작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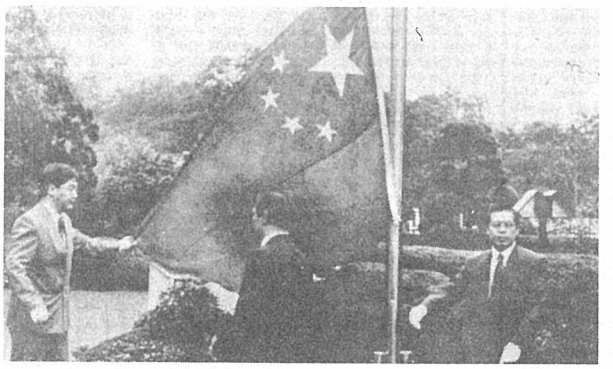
지난 8월24일 체결된 한중수교를 바라보는 입장은 적어도 두가지 분석수준에서 검토될 부분이 있다. 첫째는 수교협정 체결 과정에 나타나는 우리정부의 한중정세에 대한 현실인식의 부족과 안이하고 조급한 외교스타일이다. 둘째는 한중수교를 현실로 받아들일 때,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동북아의 평화를 유지하며, 북한의 일본과 미국과의 관계개선창구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동북아에서 영향력을 증대하려는 이른바 중국카드의 효용성의 문제이다. 이글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한중수교의 성격과 의미를 간략하게 정리하였다.

왜 이 시점에서 수교했는가

한중수교과정은 우리측이 주도적으로 접근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6공화국 들어 한소수교와 남북한 유엔동시가입, 남북한 고위급회담의 실현 등 일련의 공세적인 북방외교정책의 성과는 동북아에서의 유일한 미수교국이었던 중국과의 수교를 마무리하면서 6공화국내에 북방정책을 완결하겠다는 정권적 의지의 표현이었다. 그러나 중국은 기본적으로 북한과의 관계정립의 문제가 남아있었고 남한과 경제교류를 진행하면서도 '물이 넘치면 도랑이 깊어진다'는 원론적 의미를 되풀이 하면서 정치관계 정립에는 신중한 자세를 취했다. 그 후 한국은 이러한 중국측의 태도를 확인하고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역으로 대만과의 유대강화를 위해 대통령 특사를 파견하는 등 한중관계는 소강국면을 보이기도 했다. 이무렵 우리 정부는 3천30억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대만의 대규모 경제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대만의 공세적인 아프리카 외교와 유엔복귀노력, 미국의 정치일정 등 변화된 국제질서 속에서 중국은 한소수교를 통해 대만문제를 주도적으로 처리하고 동북아에서의 영향력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차관문제는 양국정부가 공식으로 부인했지만 중국경제의 현황과 전례에 비추어 볼 때 아직도 의문의 소지는 남아있다) 적극성을 띠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는 대체적으로 4월 중순 이후라고 보여진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우리정부는 한중수교를 기정사실로 인정하는 것을 사실상 준비해왔던 대만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었던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외교문제를 지나치게 6공화국의 정치적 성과를 과시하기 위한 조치로서 처리하는 우를 범하였다. 이로 인해 경제적 실리를 잃었을 뿐 아니라, 중국 주도의 외교공세에 수동적으로 편입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중국측이 소극적인 자세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나왔던 이유는 거시적인 측면과 직접적인 측면으로 분리해서 설명할 수 있다. 거시적 측면은 수교문제를 타결하면서 금년 하반기로 예정된 제14차 당대회에서 개혁파의 입지를 굳히기 위한 측면, 동소평의 남순강화 이후 경제적 합리주의가 정책결정의 전면에 등장한 분위기, 중국은 동북아에서의 유일한 핵보유국의 지위를 누리기 위해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부상과 미국의 포괄적 영향력이 관철되는 3각구도로 정리될 수 있다. 특히 남북한을 둘러싼 주변4강 중 남북한과 동시에 수교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실상의 유일한 국가(CIS는 남북에 대한 영향력의 면에서 제한적이다)인 중국의 등장은 미국과 일본의 영향력의 상대적 감소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동북아에서의 헤게모니를 확보하기 위해 한—미—일 삼각협조체제를 강화하는 동시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대만카드를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미국은 대만에 대한 무기금수조치를 해제하고 150대의 전투기를 판매하려는 계획도 이러한 의도의 반증으로 보인다. 한편 일본은 일단 한중수교가 동북아에서의 냉전이 종식되었다고 보고 운신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보면서도 중국과의 동북아에서의 헤게모니 경쟁이 보다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정치적 동반자였던 한국이 아시아지역의 뿌리깊은 반일의식과 사안에 따라 중국측에 기운다면 일본의 동북아외교는 중대보다 부담스러울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한중수교 이후 동북아 질서



한중수교이후 동북아 질서의 새로운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사진:한겨레신문〉

반면 남북한관계와 관련해 북한의 반응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은 현재까지 한중수교에 대한 사실보도를 생략한 채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 이것은 한중수교에 대한 대중설득방식에 대한 원칙이 수립되지 않았거나, 조미관계 개선을 통해 자연스럽게 대중에게 주변역학관계를 설명하고자 하는 의도로 보인다. 북한의 이러한 침묵은 중국이 조일수교와 조미관계 정상화에 대한 조건없이 한중수교를 단행한 것에 대한 불만의 표시일 수도 있다. 그러나 북한이 중국을 비난하면서 자기발전노선을 선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최근 악화된 북한경제는 한해 6억달러 이상을 교역한 최대의 무역대상국인 중국을 경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중국이 공식적으로 북한과의 우호관계의 유지, 내부적으로 북한체제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때, 수세적인 정세를 돌파할 방안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일단 파악할 수 있다.

한중수교의 문제와 과제

한중수교는 동북아질서의 인정과 남북관계 개선에 중국 카드를 사용할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한중수교가 동북아질서에 끼치는 파장은 예상되어 있었던 것이고 이런 점에서 한중수교를 통한 중국의 균형추로서의 역할—동북아안정—남북관계 개선이라는 시나리오가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무엇보다도 한반도에서 중국카드의 효용성에 대한 의문이다. 중국은 수교 공동성명에도 밝혔듯이 내정불간섭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을 뿐 아니라, 북한에 대한 이념적·정치적 지지를 철회하지 않는 전제에서 조미관계 개선이나 조일수교에 참가적 기능을 수행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일본은 '북한카드'가 전략적 가치가 떨어진 시점에서 중국의 요구 속에서 조일수교문제를 처리하지는 않을 것이고 독자적인 판단과 두만강개발계획 등 일련의 실리확보와 함께 조일수교협상을 진행할 가능성이 더욱 높다. 미국도 천안문사건 이후 중국에 대한 최혜국대우(MFN)카드를 쓰면서 중국을 압박해온 것에 비추어 볼 때, 북한에 대한 핵포기, 테러리즘 포기라는 일방적 주장이 관철되지 않는 상태에서 중국창구를 통해 북한문제를 처리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중국의 영향력 수행은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남북한에 대한 동등한 상호지지의 원칙을 견지하면서 '두개의 한국'의 고착화라는 실제에서 출발해,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국내경제 발전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이 상태에서 남북관계의 실질적인 진전을 곧바로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사실 북한은 남한의 우회적 공세를 통한 흡수통합전략에 대비해 남한경제를 강화할 것이고 이것은 남북당사자간의 실질적인 통일논의를 제약하는 부정적 기능도 예상할 수 있다.

그리고 이번 수교는 경제방면에서 수많은 교류가 봇물 터지듯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는 데 일본의 경험을 반추해보고 신중한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 중국진출의 효용성도 문제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중국의 값싼 농산물의 무분별한 국내유입을 통한 국내 농업시장의 교란이라는 점이다. 한국의 대 중국 직접투자와 합작은 조만간에 그 노하우를 익힌 중국이 자기상품을 한국에 역수출할 경우 생기는 이른바 부메랑효과는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금년 상반기에만 약 10억달러 이상의 대 중국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데 역수는 교류확대의 진전에 따라 상당기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한중수교가 국내의 노동자 농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보다는 그 역의 어려운 구조를 낳을 수도 있다. 따라서 수교문제가 기정사실화된 이상 차후에 발생할 경제마찰을 대중적 이익의 기반하에서 풀어나가야 할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외교관계 내지 통일문제를 정권적 차원에서 처리하는 것이 아닌 민주적인 절차와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신중하고 실리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진정한 통일로 가는 길이 아닐까 생각한다.

거국내각

소금상자

'거국내각'이란 주로 내각 책임제가 채택되고 있는 국가에서 양당제나 군소정당제를 불문하고, 국가적 위기에 직면하는 경우 정상시에는 대립하는 제정당이 일치해서 내각을 조직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전쟁이나 경제적 위기 등의 정치적 위기에 대치해서 체제의 보존을 도모하기 위해 조직된다는 점에 있어 일당 단독내각형성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조직되는 연립내각과 구분된다.

우리나라에서는 87년에 민족민주운동진영과 김대중씨가 거국내각을 제의했다가 당시 민정당에게 거부당한 사례가 있고 지난 8월26일 김대중 민주당 대표가 거국내각을 구성해 경제의 재활성화와 민생안정·공명선거를 실시토록 하자고 제의했으나 역시 민주당에게 거부당했다.

한국 PKO 파병의 의도와 문제점

평화를 위협하는 평화유지군

미국, PKO 자금난 해소와 군산복합체의 이익추구

이해관계 얽힌 군부세력, 파병강행

정부와 민자당은 지난 9월2일 유엔이 보내온 평화유지활동(Peace Keeping Operation)설문서 답신과 관련한 고위 당정회의를 열어 한국군 보병도 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세계적인 평화와 군축의 흐름속에서 유일하게 군비를 증강하고 있는 한국과 일본의 해외파병 기도가 본격화되고 있다. 일본의 해외파병은 지난 6월 15일 저녁, 중의원 본회의에서 자민당안이 날치기로 통과됨으로써 가능해 졌다. 한국의 PKO파병도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은 예견하고 있다. 그 이유는 대한민국 헌법 제60조 2항에는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안에서의 주둔에 대한 동의권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작년 걸프전 당시 '국군 의료지원단 파견 동의안'이 국회에서 의결에 붙여졌듯이, 민자당의 해외파병 기도는 국회에서의 다수동의라는 과정을 반드시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한편 정부내 국방부와 민자당 내의 강경파들은 지난 걸프전에서의 한국군파병과 같은 방식이 아닌, PKO파병을 위한 전문부대의 창설까지도 포함하는 한국의 PKO 및 PKF상비군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의 해외파병 기도가 14대 국회에서 쟁점화될 것이 확실시 되는 상태에서 민주당을 비롯한 보수야당의 당론은 PKO에 대해 확실한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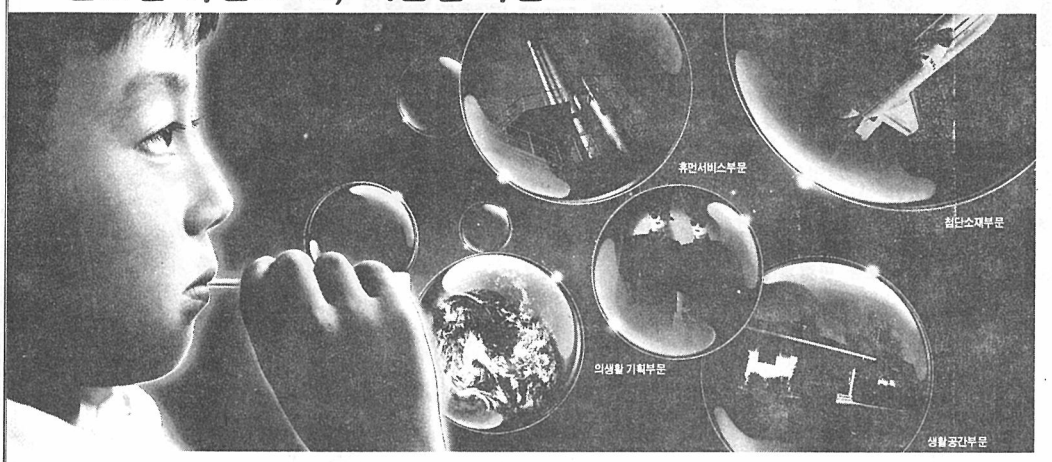
그렇다면 국방부를 중심으로 한 해외파병 강행론자들의 논리는 무엇인지 살펴보기로 한다. 냉전의 양축이었던 소련과 미국의 힘이 다같이 쇠락해 가는 세계정세의 특징은 일본과 독일등 새로운 제국주의 세력의 대약진과 이를 통한 새로운 세계질서 수립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소의 정치—군사적 대립으로 '긴장속의 평화'를 유지해온 세계정세는 지역화의 새로운 흐름 속에서 '세기말의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 그것은 군비경쟁을 영원히 포기하고 평화와 복지의 세계로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전쟁과 억압의 한세기를 이어나갈 것인가, 하는 선택이다.

여기에서 구시대 냉전질서 속에서 성장하여 온 '냉전세력'은 섭사리 자신의 체질을 개선하지 못한 채, 구질서의 유지 온존에 자신의 이해관계를 걸고 있다. 특히 냉전의 집결지였던 한반도에서 180만 대군과 4천대의 탱크, 1천2백대의 전투기,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장거리 유도미사일과 각종 첨단무기들은 하루아침에 고철덩어리로 변해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 서서히 도래하고 있다. 그것은 남북간에 불가침을 합의한 새로운 한반도 정세가 암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누구보다도 국방부를 위시한 군부세력이 가장 큰 위협을 느끼고 있음이 분명하다. 정부 내에서조차 무수한 비판을 무릅쓰고 굳이 파병을 강행하고자 했던 당사자들이 바로 국방부를 중심으로 한 군부세력이었음은 이를 웅변하고 있다. 이들은 전세계의 지역분쟁을 배후 조종하는 미국의 군산복합체, 국제마피아 집단의 자기증식논리의 연장선 위에 있다.

이런점에서 볼 때, 이번 정부와 민자당이 파병 하기로 한 보병 5백40명이라는 숫자는 결코 작지만은 않다. 그것은 단 한번의 계기만 주어지면 천명, 만명이 될 수도 있다. '냉전 이후'의 국제정세와 세계평화, 그리고 안정을 위해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PKO파병의 취지라고들 하는데, 이것은 몽땅 거짓말이다. 냉전 이후의 세계평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진정의 가장 적절적인 원인으로 인식되고 있는 빈곤과 질병과 기아와 종교적·문화적 갈등을 해소시키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국이 군비경쟁을 포기하고, 인류공동의 이익에 동참하는 데서 주어진다. 따라서 유엔이 자금난을 이유로 한국과 일본에 PKO를 권유하는 것 또한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됐다 하겠다.

서 영 완
〈반핵평화운동연합 객원연구원〉

"인간을 위한 20년, 기술을 위한 20년"



제일합섬 설립 20주년

기술과 도전의 역사 20년—
제일합섬은 새로운 생활문화를
창조하는 21세기 첨단기술기업으로
힘찬 제 2의 도약을 시작합니다.

제일합섬은 천연섬유 중심의 국내 섬유업계에 최초로 비스코스 레이온 직물을 생산, 공급하며 한국 섬유산업을 선도해 왔습니다.
이제, 우리의 힘과 기술로 세계유수의 메이커와 당당히 그 어깨를 나란히하며 섬유신소재, 베이스 필름, 엔지니어링플라스틱에서 플랜트수출에 이르기까지 인간이 필요로하는 소재에 생명을 불어넣는 소재산업을 꽃피우고 있습니다.
앞선기술과 첨단소재로 인류의 새로운 생활문화를 창조하는 제일합섬 —
21세기 세계적인 첨단기술기업으로 제 2의 도약을 힘차게 시작합니다.

첨단 기술기업
제 일 합 섬

조작가능성 내포한 '김낙중 간첩사건'

안기부…일가족 연행된 열흘동안 증거물을 김대표집에서 발견된 것처럼 사진찍어 조작했을 가능성 커

대선 앞둔 반공안보의식 강화로 안정적 정권재창출 노려

'국가안전기획부는 지난 8월 25일 민주개혁과 사회진보를 위한 협의회(약칭 민사협)의 고문이며 평화통일연구회 부회장 김낙중과 청해실업대표 심금섭등을 검거, 수사한 결과 이들은 전형적인 북한의 고정간첩임이 밝혀졌음'

지난6일 발표된 안기부의 '북한고정간첩 김낙중일당사건 중간조사결과'의 일부분이다. 아울러 안기부는 김낙중씨가 36년간 혁신계를 중심으로 활래 활약해온 최장기 매복 고정간첩이며, 주요 활동내용은 북한의 지령에 따라 재야 진보세력을 결집하여 북한노동당에 비견되는 남한내 합법적인 전위정당을 건설한 후 제도정치권 내에 교두보 확보를 기도했다는 것이다.

안기부가 증거물로 제시한 물품을 보면 공작금 1백만불과 단파라디오·난수표·인명살상용 무성권총 등등 그야말로 간첩이 아니고서는 소지할 수 없는 물품들이었다.

사건발표가 나자 마자 마치 기다렸다는듯이 각 언론·방송들은 대서특필을 했고 특별방송까지 하여 전국적으로 '간첩 비상주의보'를 내렸다.

그러나 이번 김낙중씨 간첩사건은 전후 상황을 고려하고 안기부가 발표한 내용을 몇가지만 분석해 보더라도 그것이 조작사건이라는 의혹을 씻을 수 없다.

8월25일 김낙중씨와 그 일가족이 안기부에 의해 불법연행된 뒤 그동안 신문이나 기타 언론매체등에서는 일체 보도를 자제하였다.(한겨레신문 예외) 나중에 밝혀진 사실이지만 안기부는 김낙중씨 연행사실에 대해 각 언론사에 강력한 보도통제를 요청했다고 한다. 그러나 한겨레 신문에서 처음 연행사실이 폭로되고 김낙중씨가 간첩협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보도가 나가면서 안기부는 수사를 서두르게 된다. 중간수사발표 직전까지 안기부 수사의 서두르게 된다. 중간수사발표 직전까지 안기부 관련된 자금 수수설 이었다. 그리고 김낙중씨에게 공작금을 전해줬으며 공작지도를 했다는 북한의 남파간첩 최모씨와 임모씨를 찾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번 중간수사발표에서는 공작금만 압수한 채 남파간첩이라는 최모씨와 임모씨는 결국 찾지 못하고 강화도를 통해 북한으로 북귀했다고 얼버무리고 있다.

권총·난수표·무전기·독약등이 김낙중씨댁에서 발견되었다는 주장이다. 안기부는 증거물이 김낙중씨 집에서 발견됐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사진을 제시했으나 사진을 찍은 구체적인 날짜가 명시되지 않았고, 가장 중요한 점은 가족 가운데 누군가를 증거물이 발견된 장소로 데리고 가서 입회를 시키는 것이 증거능력 보장을 위해 꼭 필요했을 터인데 가족없이 안기부 직원만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즉 일가족이 연행된 열흘동안 안기부가 증거물을 조작해 미리 김대표집에서 발견된 것처럼 사진을 찍어 사건을 조작했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연행당시 집에서 압수수색해간 개성인삼, 녹용, 미국 유학중인 아들에게 보내기위해 바꿔놓은 미화 1천5백불이 북의 김일성 주석이 하사한 선물과 공작금으로 둔갑했다는 점이다. 김일성 주석의 하사품이라고 안기부가 발표한 개성인삼은 지난 3·24총선때 민중당 총선자금 마련을 위해 당 차원에서 제3국을 통해 들어오는 북한산 개성인삼을 대량 구입한 것중의 하나이며, 또한 녹용은 김대표의 부인이 몸보신용으로 사두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안기부의 사건조작은 이번 사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공작금 부분에 이르러 더욱 더 극명하게 드러난다. 안기부는 김대표가 받은 공작금이 1백만불이상의 역대 최대규모라고 밝히고, 그돈의 주요 사용내역은 지난 3·24총선때 민중당의 총선자금으로 쓰였다는 것이다. 민중당에 내놓은 돈의 액수는 50만불이 넘는다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많아야 5천만원을 넘지 않는다고 한다. 공작금과 관련해 안기부 직원들은 가족들에게 "김낙중이가 무슨 돈이 있느냐 일정한 수입도 없고 재산도 없지 않느냐. 그런 사람이 큰 돈을 움직였는데 북한 말고 이만한 돈이 나올데가 달리 어디가 있겠느냐"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나 가족들에 의해 밝혀진 김대표의 재산은 안기부 주장처럼 공작금이 아니라 김대표 부친이 남긴 유산이었으며 그 액수가 상당한 정도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민중당 총선지원금 역시 이러한 개인적인 돈이었지 공작금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났다. 공작금과 관련해서는 최모, 임모씨 등의 남파간첩이 안기부의 주장대로라면 이미 북으로 북귀(?)해버린 상태라 안기부 역시 이후 뚜렷한 물증이 필요한 상태이다.

세째, 이 사건은 미리 각본이 짜여 있었다는 의혹이 짙다. 김대표의 부인과 두 딸이 안기부로 연행된 후 안기부 직원들은 "이 사건은 해방 후 최대의 간첩사건이다. 엄청난 사람들이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 누구누구가 관련되어 있는지 뚜껑을 열면 모든 사람들이 놀랄거다"라는 말을 계속했다고 한다.

또한 연행과정에서부터 수사과정까지 철저하게 보도통제까지 하면서 극비리에 진행되었다는 것이며 현재까지도 김낙중씨에 대한 변호사의 접견을 허락하지 않고 있다.

연행당시부터 이미 안기부는 계획적인 '조작'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렇듯 여러가지 정황으로 미루어 봤을때 조작사건임이 확실시되는 이번 간첩사건을 통해 안기부는 무언가를 노리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안기부는 어느정도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으며 55년에 월북한 경험이 있고 줄곧 통일운동을 해온 김낙중씨에게 간첩협의를 씌우는 일이 상대적으로 용이했을 뿐더러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여론 충격 효과의 정도도 감안했을 것이다.

'안기부는 북한이 학원, 노동, 문화계 등의 좌익세력과 이른바 진보·혁신 세력권에 또 다른 간첩망을 구축, 북한노선 추종활동을 배후조정하고 있다는 단서를 잡고 이들 지하 공직망을 끝까지 색출하기 위하여 수사를 확대중에 있음'이라는 발표문의 결론에 이르면 이번 사건을 통해 노리는 안기부의 의도는 더욱 확연해진다.

그것은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른 국보법·안기부 폐지론에 대한 여론무마용이라는 것과, 제2이동통신·관권선거 폭로등 현 정권에게 불리한 정세를 타개하기 위한 자구책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중요하게는 대선을 앞두고 민민운에 대한 대국민 신뢰저하와 이른바 '운동권 싹쓸이'를 통한 대선에서의 안정적인 발판을 마련하자는 의도일 것이다. 민사협의 이해숙 간사는 이렇게 말한다.

"조작사건이라는 게 분명한 이번 김대표 간첩사건을 통해 안기부는 다른 무엇보다도 더 효과적인 대국민 반공 안보의식 선전차원으로 활용하려 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전국연합을 비롯한 노동운동등 민민운 진영을 중심으로 계속 사건 확대를 예고하는 것만 보아도 이번 사건은 현 정권의 안정적인 정권재창출 음모의 일환인 것입니다."

〈박현숙 기자〉

◇김낙중 전 민중당 공동대표 사건 일지◇

92. 8.26(수): 오전 7시경 안기부 직원 2여명에 의해 일가족 연행
8.27(목): 김낙중씨가 부회장으로 있는 평화통일 연구회 사무국장 노중선씨 연행. 김낙중씨 친구이며 청해실업 대표인 심금섭씨도 연행
8.28(금): 평화통일연구회 윤영위원장인 권두영씨 연행. 오후 5시경 모언론기관 기자전화제보로 오전에 김낙중, 심금섭씨 비밀영장 발부 확인.
8.29(토): 민사협 압수수색과 동시에 재야단체인 전국연합, 반핵평화운동연합, 전국노운협등 단체가 압수수색 당함.
가족들이 면회를 재촉하자 안기부 수사관 2명이 나와서 현재까지 김낙중, 노중선, 심금섭, 권두영 4명에 한하여 영장발부 확인.
이러한 사실을 각 언론사에 알리고 협조를 요청했으나 모든 언론사에 '보도통제' 지시가 떨어져 언론사에서는 사건 발표시까지 실을 수 없다는 답변을 아주 곤란하게 표명함.
9. 4(금): 연행된지 열흘만에 부인과 두딸 풀려남.
9. 7(월): 김낙중씨, 노중선, 심금섭, 권두영씨 간첩 또는 간첩방조자자라고 안기부 중간수사 발표.

외신분석

◇미국의 이라크 제재를 바라보는 시각…두번째

제2의 걸프전을 준비하는 미국

대선앞둔 부시정권의 정치적 돌파구 역할

이라크 지역분쟁 연출로 자국 무기 판매에 이용

미국은 최근 이라크 남부지역에 비행금지 구역을 설정해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세계를 뒤흔들어 놓았던 러시아혁명이 20세기의 시작을 알렸다면, 소련을 비롯한 동유럽 사회주의국가의 몰락은 아이러니컬하게도 20세기의 말미를 장식하고 있다. 냉전구도의 종식과 걸프전쟁이후 미국은 유일강대국으로서 유감없는 힘을 발휘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세계질서구축을 향한 Big Two(일본, 독일)국가들의 거센 도전은 미국으로 하여금 새로운 세계전략을 준비하게끔 하고 있다.

정치·군사적 측면에서 볼 때, 미국은 세계적 차원의 악마의 제국인 소련을 대신하여 각 지역에 악마의 제국—이라크, 리비아, 북한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고 있다. 미국은 대외적으로 이들 나라들이 핵무기를 소유함으로써 지역패권국이 되는 것을 사전에 봉쇄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대내적으로는 파도한 국방비지출에 대한 대규모 삭감을 주장하는 여론을 피하려는 의도이다.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미국은 전세계적 차원의 자유무역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우루과이라운드의 일괄타결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또한 블럭화되어 가는 세계경제에 대응하여 신중상주의 정책인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체결하였다.

미국의 중동지역전략은 현상유지를 통한 안정적인 자원확보에 있다. 이로인해 70년대 두 차례의 석유파동을 경험했던 미국을 비롯한 선진자본주의국가들은 90년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에 대응하여 신속한 동맹체제를 형성할 수 있다. 미국은 1년 전 루르드쿠난민에 대한 인권탄압을 빌미로 한 북위 36도 이북의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시아파 이슬람교도들에 대한 후세인의 무차별적인 공중폭격을 방지하겠다고 부시는 8월 26일에 32도 이남을 비행금지구역으로 선포하였다.

그러나 걸프전쟁 당시와는 상황이 달라졌다. 무엇보다도 쿠웨이트를 제외한 대부분의 중동지역국가들이 차이는 있지만 미국의 강압적인 자세에 반대하고 있다. 비행금지구역 선포가 자칫 이라크를 3등분시키려는 미국의 장기전략에서 비롯한 것이라는 우려이다. 이집트와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이라크에 대한 압력을 가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영토와 민족의 자주권을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요르단의 경우, 비행금지구역 선포가 이슬람교도들을 억압하고 있음이 자신들의 무기판매에 유리하다는 것은 명백하다.

미국이 구유고 사태에 개입을 매우 신중히 하면서도, 이라크에 대한 적극적 공세를 펴는 이유는 가시적인 성과물이 많기 때문이다. 사회주의몰락 이후 동유럽에서 불고 있는 민족분규의 해결과 새로운 질서과 무기력함은 68년 선거에서 공화당의 낙슨을 지지하게끔 하였다. 소련의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카터행정부의 나약함도 레이건에게 결국 승리를 양보해야만 했다. 반면, 루바미사일위기때 케네디의 단호한 대처, 레이건의 그라나다 침공등 승리를 확신시켜주는 대통령의 강력한 지도력은 미 국민들의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 호전적인 국제주의자 부시는 대통령재선을 위해 전과 달리 강력한 어조로 걸프전쟁 당시의 이미지를 미국 국민들에게 심어주려 하고 있다.

둘째, 군산복합체로 표현되는 미국독점자본의 요구에서 비롯된다. 90년을 시점으로 미국은 세계최고의 무기수출국이 되었다. 86년부터 90년까지 중동지역에서 미국이 판매한 무기총액은 3백 7억 달러에 이르렀다. 특히 걸프전쟁이후 중동지역은 미국의 신무기열풍에 휩싸였다.

그러나 소연방의 해체와 동—서 냉전종식으로 미국의 군수업체들의 성장은 둔화될 전망이다. 미 국방부의 올해 조달예산은 6배 50억달러로써 85년의 절반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앞으로 매년 5%씩 그 예산이 줄어들 전망이다. 결국 미국방부의 예산축조에 따라 군수업체들은 해외시장은 물론 민간시장에 까지 덤핑으로 무기를 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라크의 핵무기 생산가능성을 확대조작하여 지역갈등의 분위기를 연출시키는 구축에는 많은 시간, 어려움이 뒤따른다. 반면 이라크 영공내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치한 것은 중동지역의 유일패권국으로서 그 어느 때 보다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 기인한다. 걸프전쟁당시 이라크군 사망자 수는 10만—12만명, 민간인 사망자 수는 5만—7만 6천명에 이른다. 반면 미국을 비롯한 다국적군의 피해는 139명에 불과하다. 이라크는 걸프전쟁 이전수준의 재건사업에도 향후 수십년이 걸릴 것으로 추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자국의 인권문제 등은 아랑곳하지 않고 도덕적으로 후세인을 패륜아로 몰아가는 자신들의 전형적인 언론플레이를 교묘하게 부추기고 있다. 이라크의 민족자주권을 침해하는 비행금지구역의 본질은 부시의 재선카드, 군산복합체의 요구, 석유자원의 안정적 확보에 근거한다. 미국은 또 한번의 악의에 찬 정의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이 준 영
〈민족과 국제관계 연구원〉

제4회 임수경 통일문학상

임수경 대표의 방북성과를 계승하여 문학을 무기로 통일운동을 혁신발전시키며, 민족대단결의식을 고취하여 문학예술방면의 자주교류를 실현하고자 임수경 통일 문학상은 3년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정권의 갖은 탄압과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의를 살려 세번의 행사를 무사히 치루어 내었고, 이제 제계급·계층의 구체적인 삶을 받아 안아 온전한 자주문예를 구현하는 문학상으로 탄탄하게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자주문예의 인간학을 바르게 구현한 문학작품을 통해 '제4회 임수경통일문학상'을 더욱 빛내고 통일조국으로 가는 이정표를 마련합시다.

[illegible]

가. 일반부
1. 시(서정시, 서사시, 혁명장시)
당선작—상금 150만원 가작—50만원
2. 소설(장편, 중편, 단편)
당선작—상금 150만원 가작—50만원
3. 생활글(기행문, 무용담, 편지글, 수기 등)
당선작—상금150만원 가작—5평 각10만원
4. 문예과학(서평, 비평, 장르문예운동론, 문예운동사등)
당선작—상금 150만원 가작—50만원
나. 초·중·고등부
좋은 글을 뽑아서 심사하고 시상합니다.

[illegible]

응모기간:10월15일까지
발표 및 기자회견:10월28일까지
시상식:11월3일 전총련 건준위 발족식 무렵

주최:구국의 강철대오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주관:애국외대 통일왕산 임수경 통일문학상 추진위원회

□독자투고－풍물굿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왜곡된 의미 바로잡아 주체적 민족문화로 발전시키자

놀이와 싸움은 함께 존재한다

언젠가 어문대앞에서 풍물을 치고 있을 때 옆에서 구경하던 한 학생이 "왜 집회나 시위할 때 풍물을 사용하느냐"고 물던 것이 생각난다. 이것은 풍물굿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서 나온 생각으로, 일반적으로 풍물굿을 단순히 농촌에서 농사를 지을 때 사용하거나, 놀이문화정도로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 경우라 할 수 있겠다.

풍물굿의 범위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다. 풍물굿의 쓰임을 굿판의 성격에 따라 몇가지로 나누어 보면－를른 심제로는 제사, 노동, 놀이, 싸움 등이 복합적으로 혼용하는 경우가 많아 엄격히 구분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겠으나－우선 지신밟기나 당굿에서 마을공동체의 유대감을 형성하는데 쓰였던 제사굿이 있고, 김매기, 풀베기, 추수, 고기잡이 등의 공동노동시 마을단위의 노동조직인 두레속에서 생산력증대에 기여했던 노동굿이 있다. 또한 놀이굿은 마을잔치나 축제때 판굿 등을 하면서 흥겨운 놀이마당을 형성하여 힘겨운 노동이나 삶의 활력이 되었으며, 싸움굿은 유사시 외적이나 도적의 침략등에 사용되었고 평상시에도 풍물을 치면서 전투에서 필요한 규율이나 싸움전법 등을 연습했다고 한다.

우리 한민족에 있어서 '놀이'라는 말속에는 본질적으로 '싸움'이라는 성격이 강하게 내재되어 있다. 싸움과 놀이의 문제는 곧 싸움적 놀이, 놀이적 싸움이라는 통일적 범주에서 볼 수 있으며, 이것은 본래부터 놀이 자체가 이미 싸움이었다는 역사적 사실에서 기인한다.

이러한 것이 일본제국주의의 정책에 의해 놀이적 측면만이 강조되면서 싸움의 진취성을 온매·파멸시켜 나갔고 우리 자신들도 멋모르고 놀이와 싸움을 완전히 분리하여 바라보는 오류를 범했다고 한다.

풍물굿은 원래 전투적이다

풍물굿의 성격은 풍물굿 내부에서 나타나는 성격과 지난 날 우리 선조들의 발자취를 통해서 살펴 볼 수 있다. 풍물굿 내부에서는 우선 '진풀이'와 '용어'등에서 그 성격을 찾아 볼 수 있겠다. 풍물의 진풀이에는 미지기, 태극진, 오방진, 원진, 달이죄기 등이 있는데, 일부만 살펴보면 '미지기'는 싸움·대치상황을 나타내며 '태극진'은 통일·화합을 나타낸다. 진풀이는 각 치배의 자유스러운 개성을 살리면서도 일상적 규율의 훈련과 유대감·집단성을 확보하므로, 전란시 농군들을 훈련시키기 위해 교육적 역할을 했던 것이다.

한편 현재 풍물굿에 남아 있는 용어를 살펴보면, 굿판을 시작할 때 사용하는 청령에서 "슬령수 각각 치배 다 정비하고 1초·2초·단9초끝에 행군하랍신다∧/"등의 군(軍) 용어와, 각종 싸움진법이나 민란에서 쓰였을 "땅도 땅도 내땅이다. 조선 땅도 내땅이다"라는 구호같은 가락말에서 그러한 성격이 잘 나타나 있다. 특히 경남지역의 풍물굿에서 나타는 호전적인 성격이나 해남 12채농악의 진법군고는 전투풍물의 성격을 잘 나타내 준다.

평상시 서낭당에 모아둔 돌무덤이 전시에 병기창고가 되었듯이 유사시에는 두레 풍물패가 곧 군악으로 바뀌어 농민군을 이끌고 싸움에 임했다고 한다. 이와같이 외세와의 싸움이나 지배계급에 대항한 민란의 봉기시에는 싸움을 위한 전투조직원의 결사체가 두레조직이었으며, 두레패의 풍물이 전투적인 길군악으로 쓰이며 전투풍물로서의 역할을 완수했음을 알 수 있다.

봉건적 체제속에서도 다수 민중들이 건강한 사회의식을 바탕으로 주체적 역사맥락을 이어왔던 우리의 풍물굿은 일제의 강압으로 그 성격이 왜곡되었다. 일제는 풍물굿의 힘을 제거하기 위해 농업이외에 풍물굿이 쓰여지는 것을 금지시켰고 그 이름마저도 '농악'으로 지칭하도록 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풍물굿'이라는 용어가 그 본래의 총체적인 성격을 나타내는 더 정확한 개념이 된다.

풍물굿을 창조적으로 계승하자

해방이후 주체적 민족문화의 자리매김을 하지 못한 채 밀어닥친 외래문화로 인하여 풍물굿은 심한 파손과 왜곡을 감수해야만 했다. 이렇듯 망각의 세월을 경험한 오늘날 우리는 풍물굿의 본래의 모습을 알려는 노력도 없이 풍물굿이 단순히 놀이 이외에 쓰여지는 것을 '순수하지 못하다'며 희피하려고 한다. 물론 풍물굿을 단순시 집회나 시위할 때 쓰는 도구정도로 생각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러나 풍물굿에 대한 보다 충합적인 이해가 필요하며 풍물굿을 하는 사람은 풍물의 대중화와 오늘날 우리 현실에 맞는 풍물굿의 창작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글에서 굳이 풍물굿이 전투성을 강조하는 것은 결코 그것이 풍물의 본래 성격에 벗어나지 않는다는 점과 아울러 외세의 억압과 지배계급의 수탈에 과감한 자세로 임해야 한다는 점에서다. 모순에 쌓여 있는 이런 사회속에서 민중이 수탈당하고 있는 이상 우리는 풍물굿의 전투적 성격을 유감없이 발휘해야 할 것이다.

김 덕 묵
〈인문·사학4〉

□용인캠퍼스 2학기 문화사업 기조

왕산문화가 변화하고 있다

문연 건준위, 2학기에 매체별 연합체 건설 주력
각 단위 문화부와의 연계 속에 문연을 강화해야

용인캠퍼스 문예일꾼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제까지 '문화풍토가 척박하다'는 말은 섭게 하면서도 이러한 풍토를 변화시켜 나가고자 하는 노력을 제대로 해오지 못한 실정이었지만, 이번 학기가 시작된 이후 이 문제를 고민하며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보려고 주체적으로 노력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 바로 '왕산문학예술총연합 건설준비위원회'(이하 문연 건준위)가 중심이 되어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이러한 목적의식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진행될 것이며, 이는 용인캠퍼스 2학기 문화사업의 큰 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서는 문연 건준위의 2학기 사업계획과 현재 문연건설 준비상황을 살펴보고 문예일꾼들에게 주어지는 임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한다.

91년 1학기에 발족된 문연 건준위는 아직 각 매체별 연합체건설에 주력하고 있다. 이번 학기 들어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성과라 하면 풍물패 건설의 활성화를 들 수 있겠다. 각 풍물패 대표들의 모임을 통해 연합체 건설을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가 하면, 풍물패가 없었던 자연대·사회대에서도 중앙풍물패의 도움을 받으며 풍물패를 꾸리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주체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풍물패 건설에 장애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역시 '연습공간'의 문제이다. 서울캠퍼스의 경우만를 심각한 상황은 아니지만, 현재 인문대와 사회대의 경우는 연습공간이 전혀 없는 실정이라 이 문제의 해결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한편 노래패와 문학패의 경우를 살펴보면 아직은 모임의 내용이나 꾸려진 정도가 미약한 수준이다. 지난 6월초에 있은 '92세계민속예술축전을 준비하면서 언어계열의 각파 원어노래패는 그 모임을 더욱 강화하고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나, 행사 이후에는 지속적인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내부적 활동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러한 원인은 학생들의 이해와 요구에 부합하는, 그럼으로 그들을 추동해 낼 수 있는 장이 없었다는 데 있다. 이들의 요구를 한데 모아 흩어진 인자들을 모아내고 조직적으로 문예이론 학습의 강화를 통해 내부역량을 키워나가는 것이 노래패와 문학패를 발전시키는 데 필수조건이 된다.

또한 문연 건준위에서는 문예패 연합체의 건설을 앞당기고, 세계민속예술축전을 거치면서 제기됐던 비언어계열 학생들의 요구를 함께 담아내기 위해 9월말에서 10월초에 걸쳐 '왕산종합예술축전' 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 기간에는 각 단대 학술·문화패와 함께 각 문예패체별 연합공연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 행사를 계대로 치뤄내기 위해서는 매체별로 연계를 더욱 활성화하고, 그 속에서 연합체 건설의 바탕이 될 조직적 요구를 채워 나갈 수 있어야겠다.

위의 내용들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문연 건준위의 2학기 사업기조는 크게 세가지 정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문연 건준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용덕(서학·노이3)군은 "문예일꾼들의 사상적 측면을 강화하고 매체별로 연합체를 건설하는 것, 그리고 창작·대중사업을 더욱 활발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2학기 문연 건준위 사업의 핵심이라며 "이를 위해서 문연 건준위 기관지 발간을 계획중이며 겨울방학을 이용해 문예학교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문예에 대한 지향을 함께 하는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라 하겠다.

또 한가지 간과해선 안될 것은 각파와 단대 문화부와 문연 건준위의 연대이다. 왕산문학예술총연합이 용인캠퍼스 문예일꾼들을 조직적으로 묶어 내면서 그들의 요구를 충족점시켜낼 막강한 조직으로 자리잡을 수 있기 위해서는 이 모든 사업이 각 단위 문화부와의 긴밀한 연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문예패 요구사항을 모아내고 문연을 강화시켜 나가기 위해 총학생회에서도 이를 함께 고민하며 조절해 나갈 주체를 하루빨리 세워야 할 것이다.

〈황효순 기자〉

문화 옹달샘

문예아카데미
－민족미학 연구소 주최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산하 민족미학연구소에서는 9월14일(월)부터 12주에 걸쳐 문예아카데미 92년 가을강좌를 개최한다.

문예아카데미는 올해 3월 발족을 시작으로 1학기 강좌와 여름특강을 개최한 바 있으며, 이번 2학기에는 '문학, 음악, 미술, 영화, 역사, 건축'등 5개 분야에 걸쳐 정규강좌를 개설한다.

(접수마감:9월9일(수). 문의처:민예총 743－5872～3)

은박지에 그린 사람
－류시철 지음

'소'의 화가로 잘 알려져 있는 천재 화가 이중섭의 비극적이고 절망스런 일생을 극화한 소설이다.

식민지시대와 암울한 분단의 시대를 지내온 예술가의 한 사람으로서의 보편적 생애와, 예술을 사회적인 명예나 부와 환치하지 않고 '소'처럼 살았던 그의 특수한 생애를 접할 수 있다. (한다. 4천2백원)

남한 사회주의자의 꿈
－백태웅 지음

－사노맹관련 구속자 가족 대책위 엮음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우린 어려운 시기를 함께 헤쳐가기 위해서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나의 안위나 출세보다 동지를 먼저 염려하고, 민중을 더 고민하며 우리 민족의 앞날을 밝히 가려는 사람들이 여기에 다 모여 있습니다…" (지은이의 옥중편지 중에서)

정치사상의 자유가 없는 이땅의 한 회생자인 지은이가 그간 월간지에 발표했던 글들과 아직 발표하지 않은 글들을 엮은 책이다. (노동자의 벗, 4천8백원)

우리말의 쓰임새 (221)－에게 있어서

'그에게 있어서 공부는 지옥과도 같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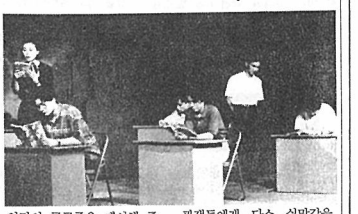
'－에게 있어서'는 일본어를 그대로 우리말로 옮긴 표현으로, 일제시대 이후에 생긴 말이다. 요즘 이러한 표현이 많이 보이는데 이는 우리말다운 표현이 아닐 뿐만 아니라 어색한 말이 된다.

이 말대신 '에게는'이라는 말을 쓰면 자연스러운 우리말이 된다. '그에게는 공부가 지옥과도 같았다'와 같이 쓰도록 하자.

용인캠퍼스동아리〈우리말가꿈터〉

□연극이야기－외대연극회 워크샵 공연 〈님의 침묵〉

침묵하지 않는 주인으로



그간에 꾸준한 연극활동을 벌여온 서울캠퍼스 '외대연극회'가 지난 3일(목)부터 5일(토)까지 제18회 워크샵공연을 서울캠퍼스 대학원 소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번에 공연된 연극 '님의 침묵'은 현대사회의 커다란 구조적 모순과 사회적 부조리를 그 곳에 몸담고 있는 주체들의 입을 통해 고발하여, 그에 대한 극복의지를 엮어낸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연극에 설정된 학교와 직장이라는 공간은 우리가 항상 생활해 왔고, 또 앞으로 접해야 할 곳이므로 더욱 현실감을 준다고 볼 수 있다.

제1막에서는 고등학교 학창생활을 설정해 그 속에서 일어나는 모순과 갈등을 학생들의 순수한 고발로 이야기하고 있으며 그들을 지도하는 한 교사를 통해 문제를 바라보는 주인된 의식을 심어 주고 있다. 제2막에서는 이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직장새활에서 더욱 극명해지는 모순과 갈등을 체험하고 이를 고발한다. 물론 그런 고발이, 사회적 한계를 넘어서지는 못하지만, 배우들은 관객들을 관찰자로, 또는 주인으로 세우고, 이들에게 판단의 여백을 남겨 주기위해 노력한다.

연극을 관람한 관객들에게 약간의 궁금증을 제시해 준 '님의 침묵'이라는 연극제목에 대해 연출을 맡았던 김권배(서양·영어4)군은 "님은 현실에의 억압받는 존재, 즉 지금까지 역사속의 주체이며, 이런 역사적 주체가 현실의 구조적 모순과 부조리에 대항하여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현실을 딛고 주인되는 길로 서야함을 나타내려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연극의 처음 기획의도처럼 관객모두에게 주인되는 의식과 극복의지를 던져 주기에는 몇가지 어려움이 지적되는 연극이었다.

주인된 의식을 가지고 억압된 굴레를 벗어나야 한다는 강한 실천의 표현이 학생보다는 교사에게 초점이 맞춰졌다는 점과, 2막 마지막에서 배우 각자가 독백하는 형식으로 인해 극복의지가 희석화되어 연극을 보러온 관객들에게 다소 실망감을 안겨 주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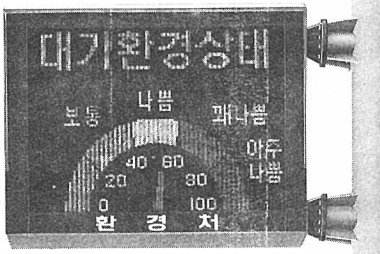
물론 '워크샵 공연'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본다면 92학번들의 참신하고 뛰어난 연기력과 배우 성원간의 화합이 돋보였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이번 워크샵은 준비하는 중에 외대연극회에서는 더 좋은 공연을 위해 학습과 토론을 통한 계획과 연구를 진행시켰으며 이느덧 이젠 워크샵의 체계가 잡혀간다는 좋은 결과를 얻어 내기도 했다.

이번의 연극을 친흠같은 인생속에서의 한차례 성장이라 느꼈다던 한 92학번 배우의 말처럼, 이들의 몸동작과 입놀림 하나하나는 꾸준히 노력하는 과정에서 그들 자신을 비롯한 관객들에게 생명력있는 심광으로 비춰질 것이다.

〈이승찬 기자〉

■1990년 7월 입사
마북리연구소 엔진설계부 설계 2과
이 주한

이주한 氏의
"지우고 싶은 대기 현황판"



출근길에 마주치는 대기현황판

어제 저녁, 6개월 만에 만난
대학 동창과의 한 잔 때문에
오늘 아침은 유난히 서둘러야만 했다.
통근버스가 시청앞을 지나칠 무렵,
여느날처럼 눈에 들어오는 대기현황판.
"현재의 대기환경상태－나쁨"

용인군 마북리의 상쾌함, 그리고…

복잡한 사내를 벗어난 통근버스는
용인, 마북리연구소 앞에서 나를 내려놓는다.
이곳에서 나의 업무는 엔진설계와 제어부문…
그래서 매일 지나치는 대기현황판의 '나쁨' 이란
글자가 머리속에 맴도는 것도 바로 자동차엔진과
관련된 나의업무 때문인지도 모른다.

린번엔진 개발성공, 그 짜릿한 희열이후…

입사 후 3개월. 나는 작은 충분을 시작했다.
대기공해를 줄이는 초저연비 린번엔진개발
프로젝트에 참여, 개발에 성공한 것이다.
비록 내가 한 일은 미미했지만 대기오염을
조금이나마 줄이는데 기여했다는 뿌듯함이란…
그래도 마음 한구석엔 '나쁨' 을 가리키고 있던
대기현황판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현황판 수치가 고쳐질 그날을 위하여…

출근길에 마주치면 늘 찜찜했던 현황판 수치.
하지만 이러한 나의 노력과 작은 보탬들이
하나둘 쌓여 빛을 발하게 되는 날,
거리의 많은 차들이 무공해 차량으로 바뀌고
대기현황판의 수치도 고쳐질 수 있으리라.

창사 25주년 HYUNDAI 인간·지구에 꿈·행복을…③

좋은 환경, 좋은 차
HD 現代自動車

기획 좌담

학안대 연장 대언탄 뚫고 대중신문으로

토론자: 신나영(동양·인도어4, 제4대 언론협의회 의장)
이상운(상경·경영3, 상경대 편집부장)
신수진(서양·영어3, 언론연구모임 노곳떼)
장 소: 외대학보사 조사자료실
일 시: 9월7일(월)
사회 및 정리: 이충미 기자

사회: 대선을 앞두고 정론직필이라는 역사속에서 비판의 목소리를 갖춘 대학언론이 탄압을 받고 있다. 1학기 내내 끊임없이 마찰을 빚어오던 서강대학보는 급기야 학생을 배제한채 주간교수 단독으로 신문을 내기에 이르렀다. 대학신문 이원화 조치에 대하여 외대인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상운: 학보사 일간지를 통해 소식을 접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서강대 주간교수가 학보의 본분에 대한 고민에서 행동했다기보다는 감정적 호소에 의존한다는 것이다. 현재 계속적인 매체혁신 노력을 하는 대학신문이 정치적으로 편향되었다고 생각지 않으며 서강학보의 이원화 조치는 독자전체가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을 갖추지 못한다.

수진: 서강대 한 사례로만 파악할 것이 아니라 작년 6월 발표된 학원안정화대책의 실천이다. 한국일보나 조선일보에서 대학신문의 아카데미즘적 기능만을 강조하는 것도 권력제편기라는 급박한 상황속에서 언론의 역할을 마비시키려는 의도이다.

나영: 90년도에는 대학신문평점제, 91년 편집권을 둘러싼 압력에서 92년은 전체적인 구도로 이원화 형태가 드러나고 있다. 학교측의 논리는 이젠 1교1신문이 아닌 다원화 추세라는 것과 아카데미즘과 저널리즘의 조화에서 비중을 두는 바가 기자와는 입장이 반대이므로 타협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는 서강대 예를 볼때 다원화가 아닌 학교의 홍보지로서 역할 제정립을 위한 것임이 드러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제작주체가 학생기자들임을 명확히하고 현재는 교수만으로 구성되어 신문제작전반에 걸친 결정사안을 통보하는 형태인 신문사 운영위원회가 제자리를 찾아야 한다. 학원의 3주체를 포함하고 기자도 함께 참석하여 운영위원회가 건설되어야 한다. 그리고 올바른 학보의 방향성에 대한 논의는 공청회와 같이 여론이 수렴되는 방법을 통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회: 학안대의 연장선 상에 있는 이같은 대학신문 탄압의 구도를 바로 파악하고 자주언론으로 지켜내기 위해서는 사회에서, 학내에서 차지하는 대학가언론의 역할과 위상을 바로 알아야 한다.

상운: 지난주 이문편집학교를 하면서 기억에 남는 말은 '생활·사랑·학문을 한장의 신문에'이다. 학보는 학원3주체의 생활·사랑·학문을 담을 수 있어야 하고 요구가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한다.

수진: 대학언론의 특성은 제도언론과의 차별성에서 극명해진다. 작년 외대학보의 광고절서회복 운동에서도 보여주듯이 자본과 정권의 논리에 예속되지 않고 자율적으로 만들어 진다. 그리고 담는 시각은 차단되지 않은 가장 정확하고 양심적인 시각이다. 지난 범민족대회때 단 한장의 사진도 실지 않은 제도언론이 이를 증명한다. 따라서 대학신문의 위상은 주간교수 개인에 의해 죄지우지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사회: 학안대와 함께 학칙이 개정된 이후로 언론사 기자의 자격에서 학점을 제한하려 하고 있다. 편집자율권이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이해되는가.

나영: 제한학점이 및 정인가를 논하기 이전에 기자활동에서 학업이 보장되는가, 이론·왕산을 모두 취재해야 하는 실정에서 예산과 공간 상의 문제가 보장되고 있는가를 보아야 한다. 대학신문의 자율성 보장을 위해서는 무작위적 학점적용보다는 기자활동의 질적보장이 선행되어야 한다.

수진: 현재의 사규의 비민주적 조항들도 학도호국단 시절의 것을 그대로 부활하는 것은 옳지 못하고 합리적으로 개정하여야 한다.

상운: 학점으로서만 기자의 자격을 논하려는 자세가 문제이다. 학생들을 위하고 학보를 사랑한다는 측면보다는 주간교수의 권위적 논리로 학생과 직원이라는 주체를 배제하는 결과를 낳는다. 기자의 자격을 논할때에는 그 평가기준이 주간교수 개인의 자의적인 판단이 되어서는 안되며 성의있는 자세로 논의에 임해야 한다.

사회: 이상에서는 대학언론에 가해지고 있는 탄압양태와 함께 본질을 이야기하였고 대학언론의 위상과 역할까지 살펴보았다. 대학언론이 올바른 자리매김을 하기 위해서는 자성적인 움직임 또한 필요하다. 앞으로 대학신문의 나아갈 방향은.

상운: 학보문제에 대한 학우들의 관심은 지지서명 참여도를 보면 나타난다. 학보에서는 독자들의 관심있는 내용을 파악하여 성도록 하고 독자들로부터 진정한 평가를 받아들여야 한다. 학보의 대중성확보 통로가 필요하고 대학내 각 언론단위가 유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

나영: 현재 학보에서 자체적으로 벌이고 있는 여론조사도 한계점은 지닌다. 과·단대 편집부원과 지속적으로 만나는 가운데 서로의 평가를 교환하면 폭넓게 의견수렴이 가능해 진다. 교수·직원도 이러한 만남속에 의견이 개진된다. 이러한 만남의 자리는 지속적으로 유지될 때 의의가 더해질 것이다.

수진: 1학년때 외대 학보에서 조직한 적이 있는 모니터제도의 활성화를 바란다. 저학년 중심으로 가능한 각 과에 골고루 1인씩을 모니터요원으로 두어 광범위하고 대중적인 평가를 다뤄해야 한다. 모니터 활성화로 필소에 언론에 관심이 없었던 학우들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사회: 대학언론이 대중성을 확보하고 독자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할 실천적 방안을 제기했다.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서울과 용인캠퍼스를 연결해 주는 역할도 외대 학보의 큰 부분임을 감안하며 대학신문의 자성적 태도와 함께 독자들의 주인된 의식도 함께 이뤄야 한다.

수진: 동아리등 활동에서 언론에 관심을 가져왔으면서도 나자신이 말로만 대중성확보를 외친 점도 없지 않다. 진정한 매체혁신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겠고 학원의 3주체 교수·학생·직원이 터놓고 의견을 토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데 대학언론이 선두적 입장에 서기를 당부한다.

상운: 막대한 학내 대화창구인 학보를 튼튼히 받쳐줄 수 있는 토대는 바로 언론에 관심있는 우리 자신이다. 독자와 학보를 이어주는 매개고리로서 과단위 편집부도 역량이 강화되어야겠다.

나영: 학교당국의 논리를 일방적으로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학원전체 성원의 의견을 반영하는 언론이 되어야 한다. 집차로 가시화하며 침투하고 있는 학안대를 신문사 운영회의의 학생참여 등 민주적 방안으로서 깨나가야 한다. 대학언론의 발전이 외대발전까지 이어지므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대학언론의 발전을 꾀해야 한다.

다른 대학 에선

한성대학

비민주적 사칙 통과 될때까지 학보제작 중지

대선을 얼마남겨두지 않은 중요한 시기에 대학언론에 대한 탄압과 규제가 점차 강화되는 가운데 한성대신문은 제작중지조치에도 불구하고 지난 8월17일(월)자로 개강호 190호를 제작·배포했다.

이번 한성대신문 제작 중지의 원인은 학생기자와 박현영(경제학과)주간교수 양자간에 신문사 사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 대립에서 비롯되었다. 주간교수는 '한성대 신문사 정상화를 위한 조치'라는 제목아래 사칙개정안을 세차례에 걸쳐 내린 바 있다. 개정요지를 살펴보면 8월4일(화)로 낸 첫번째 조치는 △논설위원(전 주간교수)만이 사설을 집필 △논설위원의 신문제작 및 편집지도를 받을 것 △모든 광고는 주간교수가 결정 △외부원고는 4면 발행시 20매 이내로 한두개, 8면 발행시 20매 이내로 두세개로 한정 △8월 10일(월)까지 결정, 새로운 사칙에 의해 신문사 내규를 결정하고 2학기 신문제작을 시작한다는 내용등으로 되어 있다. 이에 8월10일(월) 주간교수는 학생기자와의 면담속에서 개정요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개강호부터 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학생기자의 8월 11일(화) 2차 면담 요청에도 불구하고 최종 결정은 학장과 만난 후 얘기해주겠다며 거부의사를 밝힌 바 있다. 한성대 신문사 기자들은 계속 논의의 진전이 없자 지난 8월18일(화) 주간교수 동의없이 제작 중지인 한성대신문 190호(개강호)를 제작·배포하였다. 이에 8월19일(수) 주간교수는 개정요지안 두번째 조치로써 △주중 9시 이후 및 주말, 공휴일에도 신문사 출입을 통제 △최근 3학기 평균학점 2.0이하 기자는 해임조치, 남은 기자들과는 서면으로 얘기하겠다는 내용을 제시하였다. 이어서 8월 20일(목) 학생기자와 주간교수의 3차 면담이 있었지만 주간교수는 조치내용을 계속 주장할 뿐 논의의 진전을 가져오지 못했고, 개강호 제작·배포후 8월25일(화)에는 '제작중지에도 불구하고 개강호를 제작했다'는 이유로 편집장을 해임하겠다는 내용의 세번째 조치를 제시하였다.

이에 맞서 학생기자는 한성대신문 16년간의 역사를 지키겠다는 결의와 함께 20일(목)부터 '한성대신문 제작중지 철회 및 편집자율권 사수를 위한 3천 학우 서명운동'을 벌였다. 이와같은 서명운동을 통해 1천여명의 한성대학생들은 '한성대신문의 편집자율권은 한성인의 권리', '비선 등록금 안에 피같은 학보발행비가 포함되어 있으니 학보가 제작 중지라면 학보발행비를 돌려달라', '16년동안 지켜온 자유언론의 횃불을 결코 끌 수 없다'라며 지지서명에 참여하였다.

한심대 신문사 기자들은 한성대신문의 주인인 3천여명의 한성대학생들의 권리인 한성대신문을 되찾고자 지난 9월1일(화)부터 단식에 들어갔으며 9월4일(금) 사설권을 되찾기위해 한성인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가졌다. 또한 기본권 사수투쟁의 결의를 밝히며 철야농성을 벌이고 있다.

〈정공영 기자〉

명수당 明水塘

우리에게 없는 것과 가진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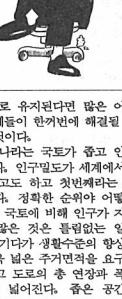
지난 여름방학동안 한번도 서울 밖으로 나가보지 못했다.

대학교수는 1년에 6개월은 '노는 날'이니 얼마나 편하냐고 부러워하는 사람들도 있다. 겨울방학, 여름방학을 통째로 '놀고' 1주일에 강의시간도 고작 10시간에서 20시간 이내라는 계산이다. 그러나 교수는 결코 편안하거나 시간이 남아돌아가는 직업이 아니다. 남들이야 어떻게 보건간에 나는 지난 여름 거의 하루도 쉴새 없이 바쁘다. 그래서 서울을 떠나보지 못한 것이다.

그런데 오히려 반대의 현상이 나를 유쾌하게 했다. 휴가철이었던 7월 하순에서 8월 중순까지의 3, 4주동안은 평상시의 서울에 비해 너무도 한적하고 공기가 맑아졌기 때문에 거꾸로 서울에서 살 맛이 나는 것 같았다. 나는 자동차로 가득한 고속도로를 TV를 통해 보면서 집시람에게 저 고생 안하고 얼마나 좋으냐고 싱겁게 말했다. 집 없는 거지가 아들에게 우린 집에 불 날 염려도 없고 얼마나 좋으냐고 말했다는 꼴이었다.

어쨌건 많은 차량들이 빠져나간 서울은 너무도 쾌적해서 나는 거의 매일 '아, 서울이 늘 이랬으면' 하고 탄성을 질렀다. 인구가 50만인가 또 이하인가 하는 노르웨이의 수도 오슬로의 한적하다 못해 저녁때면 쓸쓸해 보이는 거리가 문득 생각났다. 그때 빠져나간 차량은 서울로 되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법이라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다.

우리나라의 인구는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반, 한일합방이전까지는 2천만 미만이었다. 한말에 우리나라에 왔던 서양사람들은 남북한 전체 인구를 대개 8백만에서 1천5백만까지로 추산했었다. 1920년대의 동아일보나 조선일보에도 흔히 '2천만 조선동포야'라는 말을 발견할 수 있다. 2천만이 새 되지 않았기에 그런 표현을 썼을 것이다. 만일 현재 우리나리의 인구가 2천만 수준으로 유지된다면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한꺼번에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두뇌, 기술, 부지런함,
성실성이
우리의 재산이다

정 진 석
〈신문방송학과 교수〉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고 인구는 많다. 인구밀도가 세계에서 4번째라고도 하고 첫번째라는 말도 있다. 정확한 순위야 어떻게 되었건 국토에 비해 인구가 지나치게 많은 것은 틀림없는 일이다. 거기다가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더욱 넓은 주거면적을 요구하게 되고 도로의 총 연장과 폭도 자꾸만 넓어진다. 좁은 공간에서 부닥치며 살자니 경쟁은 더 치열해지고 갈등이 증폭된다.

우리나라는 부존자원도 빈약하다. 국토는 넓힐 수도 없고 인구를 줄이는 일도 불가능하다. 그러나 인구가 많다는 것은 반드시 부정적인 시각으로 볼 것만은 아니다. 인구는 국가의 재산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인적자원'이라는 말도 있지 않은가.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주어진 환경에 슬기롭게 적응하면서 살 수 밖에 없다.

이런 환경을 극복할 방안은 무엇인가. 두 가지 방법 밖에는 없겠다. 하나는 빈약하나마 가진 자원을 알뜰하게 아끼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일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천연조건도 잘 활용해야 하며 근검절약을 국민적인 습성으로 만들어 자손 대대로 계승시키도록 해야한다.

두번째로는 우리의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외국과의 협력관계를 더욱 긴밀하게 다지는 일이다. 10년 전쯤의 일이지만 포항제철에 산업시찰을 갔는데 세계에서 도 몇 번째 가는 포항제철이 생산하는 제철의 원료는 구실 몇 프로인가를 외국에서 도입한다는 말을 들었다. 철은 산업의 쌀이라고도 부른다. 그 원료의 거의 전부를 도입하는 데도 다른 개발도상국들이 부러워하는 규모와 생산능력의 공장을 운영한다는 것은 천연자원보다도 인적자원이 더 소중함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겠는가.

결국 우리가 더욱 부강한 나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들과 더욱 긴밀한 유대관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 결론이다. 각기 다른 조건을 가진 세계의 여러 나라들과 상호보완적인 협조관계를 구축하는 일이 중요하다. 협조관계의 기본이 되는 요체는 상대방을 이해하는 일이다. 상대방으로부터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 쪽에서 줄 것이 있어야 한다.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두뇌, 기술, 부지런함,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성실성일 것이다.

방학이 끝나고 현재는 서울을 빠져나갔던 그 수많은 차량들은 또다시 되돌아왔다. 도시는 혼잡하고 공해로 가득찬 이전의 모습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과다한 인구는 우리의 국력이며 치열한 생존경쟁은 발전을 위한 원동력이라는 확신을 갖게 된다.

국가의 장래와 민족의 번영을 위해서 우리 외대인이 할 일은 너무도 많고 맡아야 할 역할은 지극히 막중할 것 같다.

공 고

제 목: 아르바이트 지원서 접수

1992년도 제2학기 아르바이트 지원서를 아래와 같이 추가 접수하여 많은 학생들에게 사회경험 및 학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코자 합니다.

1. 접수기간: 1992. 9. 1~9. 30일까지
2. 지원서 배부 및 접수처: 학생처 취업보도계 (부직 담당)
3. 대 상: 전학년
4. 지원서를 제출한 학생에 대하여 추천 우선권이 부여됨.

1992. 9.

학 생 처

일본어 수강생 모집

본 외국어연수원에서는 단기간에 효과적으로 일본어(강독 및 회화)를 학습할 수 있는 강좌를 아래와 같이 개설하니 재학생의 적극적인 호응 바랍니다.

1. 모집학과 및 인원

학 과	과 정	인 원
일 본 어	초 급	25명
	중 급	25명

2. 교육기간: 1992. 9. 14(월)~11. 20(금)(10주)
3. 교육시간: 주 4일(월, 화, 목, 금요일), 1일 2시간(17:30~19:20)
4. 지원자격: 학부 재학생 및 대학원생
5. 선발방법: 등록순 마감
6. 수 강 료: 120,000원 일시납
7. 등록기간 및 장소: 1992. 9. 1(월)부터 교학과

※교과과정 안내

과정	과 목	주시수	학 습 내 용	교 재
초급	독 해 Ⅰ	2	문맥의 기초를 읽히고, 간단한 문장의 내용을 파악한다.	일본어초보(Ⅰ, Ⅱ)
	문형연습 Ⅰ	2	기본적인 문형을 연습시킨다.	〃
	청취력 Ⅰ	2	보통속도의 일본어 청취력을 키운다.	일본어코스
	회 화 Ⅰ	2	일상생활에 필요한 회화능력을 키운다.	담당교수 준비
중급	독 해 Ⅱ	2	보다 복잡한 문형의 교재를 읽고 내용을 파악한다.	일본어표현문형(Ⅰ, Ⅱ)
	청취력 Ⅱ	2	보다 속도가 빠른 고도의 내용으로 된 교재로 듣기를 훈련한다.	N.H.K News, Drama
	회 화 Ⅱ	2	커뮤니케이션 능력의 향상을 도모한다.	담당교수 준비
	회 화 Ⅲ	2	Discussion, Speaking 연습을 한다.	〃

1992년 9월

외국어연수원

취업정보안내

기 업 체	직 종	인 원	자 격	기 타
다우 케미컬	비서직	여 1명	1)영어회화 능통 2)PC및 OA기능보유 3)보훈대상자 4)93년 졸업예정자	0. 면접 0. 9월 9일이전
신한코리아	해외영업	○명	1)영어능통자 2)병역필, 면제자	0. 1차서류전형 0. 면접 0. 9월30일이전
(주)아카데미과학	무역사원	남 ○명	1)영어과 2)92졸업및 93년졸업예정자	0. 9월9일이전
남영라이론	사무관리직	남약간명	1)92년 졸업자및 93년 졸업예정자 2)성적B+이상자 3)ROTC및 학사장교 우대	0. 면접및 필기(영어, 상식) 0. 신체검사 0. 9월10일이전
(주)오버시즈 트레이딩	비서직	여1명	1)영어회화능통 2)지성과 센스갖춘분	0. 서류전형 0. 면접 0. 9월 15일한
삼천리그룹 기획실	그룹회장단 비서직	여 2명	1)기 졸업자 2)1968.1.1이후출생 3)성적 B학점이상자 4)용모단정	0. 9월16일한

*자세한 문의는 학생처 취업보도계로 직접방문하여 문의 바람.

학 생 처

□MBC 노조파업 현장을 다녀와서

"이제 국민의 방송으로 우뚝 서겠습니다"

공정방송조항·PD복직문제, 파업의 핵심 쟁점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성 쟁취해야

서울여의도 본사 1층 로비 '민주의 터'에서 5백여명의 조합원들이 농성을 하고 있다.

"문화방송노조 사수하여 추천제 쟁취하고 공정방송 이룩하자"

문화방송은 방송민주화를 쟁취하기 위해 지난 9월1일 파업에 돌입했다. 집회 장소인 서울 여의도 본사 1층 로비 '민주의 터'에는 5백여명의 조합원들이 빽빽이 자리잡고 있었으며 폐쇄된 정문의 유리창 너머로 커다랗게 걸려있는 현수막에는 검은 붓으로 새긴 글씨가 조합원들의 우렁찬 목소리와 어우러져 있었다. 분위기가 고조되었을 때 대회사를 하기 위해 강단에 나온 이완기(노조위원장 직무대행)씨는 "회사측의 일방적인 단체교섭 거부는 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처사로 볼 수밖에 없다"며 "공정방송, 노동조합 말살에 맞서기 위해 파업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라고 말했다.

편성·보도·기술국장 추천제, 공정방송 관련조항, 해고자복직문제, 임금 일방인상, 전임자 무급 및 시간의 법적수당 조항 등 핵심쟁점 사항에 대해 노·사가 지난 4월28일부터 대화의 줄다리기를 해왔으나 합의점을 도출시키지 못해 8월17일경 노조가 쟁의발생신고를 냈었다.

"방송을 제작하는 사람은 일선방송인이지만, 그 방송 여부는 방송사의 사장이 결정할나다. 따라서 방송의 독립은 방송사의 사장이 독립될 때 비로소 가능해집니다"라고 조현모(문화방송 보도제작1부)씨는 말한다. 현재, 임원·사원·행정 3부에 의해 추천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송위원회가 문화방송의 사장이 선출되는 방송문화진흥회를 규정하기 때문에 방송의 독립성이 실제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이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점들은 방송화면 속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지난 8월28일 주간 스포츠중계 계획 원안에 없던 한·일 청소년 핸드볼경기 중계가 갑자기 잡힌 사실을 고려해볼 때 YS 총재 수락연설을 위해 급조한 편집이라는 의혹이 짙다. 추천제·공정방송협의회 등을 폐지하려고 온갖 노력을 보이고 있는 사측의 태도는 대선을 앞두고 위와같은 일방적인 편파방송을 자행하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밖에 간주할 수 없다. 문화방송이 국민의 방송이고, 구성원 모두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송이라 자처하면서도 '추천제는 인사권을 침해하는 제도'라고 규정하는 것으로 보아 결국 문화방송을 몇몇 상층 간부들만이 독식하겠다는 저의로 파악할 수밖에 없다. 사용자측의 입장을 주로 대변해온 조정위원회에서 조차 '문화방송이 89년도에 타협한 단체협약 현행유지 바람직'이라는 의견을 냈었다.

또한 이번 파업의 핵심쟁점 중의 하나로서 해고자 복직문제가 있다. 지난 90년 가을 'PD수첩—그래도 농촌을 포기할 수 없다'가 그당시 남북고위급회담을 하기 위해 서울에 온 북측대표들에게 좋지 않은 이미지를 심어주게 될 것이 우려돼 일방적으로 방송연기 한 것에 항의하던 안성일(당시 노조위원장), 김평호(당시 사무국장) 두 노조간부에 대해 다분히 감정적 요소가 내포된 해고조치를 단행했었다. 진실한 모습을 보여주며 남북대화에 임하는 것이 올바른 도리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불공정 사례의 시정절차를 요구하는 두 노조간부를 인륜 핑계를 대며 해임시킨 최창봉문화방송 사장은 권력에 알아서 기는 용의주도(?)함을 보여주었다.

'다른 일 하지않고 노조일만 하는 사람에게 회사는 임금을 지급 못하겠다'라는 전임자 무급 및 시간의 법적수당 문제 역시 쟁점사항이 되고 있다. 조정위원회의 사용자측 위원인 이해범(대우자동차 부사장)씨 조차도 "전임자 무급은 우리나라의 노동현실에서 무리이므로 회사가 철회해야 한다"라고 말한다. 시간의 법적수당 조항에 있어 사측이 방송의 특수성을 들고나와 생떼를 부리는 것에 맞서 노조는 "근로기준법대로 하는 것이지 무슨 소리냐"며 일축했다.

단체장 선거 연기 당위성의 일방적 홍보, 한맥회 사건 및 주주 총선 대책 문서사건 등의 선거관련 기사 축소·삭제 보도, 을밀픽을 통한 주요사건 희석처리 등을 자행하며 명목적인 해바라기성 권력추종주의를 노골적으로 수행해온 사측의 태도는 현재의 언론이 권력과 자본으로 부터 독립성과 자율성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해준다.

생계문제를 담보로 잡고 기자를 비롯한 사원들의 양심과 자존심을 짓밟는 보도형태를 취하고 있는 상층 경영진들의 태도는 문화방송을 국민의 방송으로 자리매김 시키기위한 노력을 보이고 있는 노조원들로 부터 강한 반발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우리의 요구는 진정 국민을 위한 참방송을 만들고 해고된 형제들과 함께 문화방송을 신명나게 보람찬 일터로 만들고 싶은 것 외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며 "문화방송 노조는 임금문제를 파업의 주요 쟁점으로 간주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문화방송 노조의 근본적인 존재 이유인 공정방송 실현을 위해 파업하는 것입니다. 문화방송을 보며 무조건 비판만 하는 태도는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하며 근본적인 문제점을 인식하고 시청자들도 문제점들을 고치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박영춘(노조 사무국장)씨는 말한다.

89년 이후 뚜렷한 활동을 보이지 않던 문화방송 노조가 92년 권력교체기를 앞두고 공정방송을 향한 움직임을 가시화하면서 권력 및 자본 등과 밀착된 방송사구조의 본질적인 문제점을 파헤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어 파업의 귀추가 주목된다.

〈김남중기자〉

□방송위원회를 해부한다

'본 방송은 방송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TV나 라디오를 즐기지 않는 사람에게도 너무나 친숙해져 있는 말이다. 방송위원회에 대해 잘 알지 못하더라도 뭔가 대단한 기관일거라는 느낌을 갖게하는 말이기도 하다.

방송법 11조에 따르면 방송위원회는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방송의 최고기관이다. 이런 권위를 가진 기관에게 '권력의 허수아비' '대리통제기구'라는 비판과 분노가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다.

도대체 왜, 방송위원회가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기에 현직 방송위원마저 방송위원회는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몇몇 독선적, 기회주의적 인물들에 의해 관변 거수기로 전락해버렸다는 폭탄 선언을 하기에 이르렀는가.

87년 민주화투쟁으로 개정된 방송법아래에서의 방송위원회는 나름대로 독립성을 유지했지만 당시에도 문공부가 직접 말아오던 언론통제를 방송위원회를 통해 하려는 의도가 다분히 내포되어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방송위원회의 막대한 권한 중 각 방송사가 정기적으로 문공부장관과 방송위원회에 매일 방송내용을 보고토록 한 것등이 그것이다.

90년 7월 국회에서 야당의원들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날치기로 통과된 방송법에 따라 새로 구성된 방송위원회는 권한의 상당부분을 빼앗기고 대리통치기구의 성격을 더 분명하게 띠게 된다. 현재 방송위원은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이 각각 3인씩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한 9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권력의 허수아비' 방송의 최고심의 기구

그러나 지금의 정치상황으로는 야당의 추천 1인을 제외하고는 대개가 친여, 보수적 성향인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현 방송위원 중에는 유신시절 '유정회' 국회의원을 두차례나 지낸 인물, 자유당시절 공보부 출신으로 주일공사를 역임한 인물, 정부 제2장관을 지냈던 인물 등 방송과 관련없는 친여·관변 인물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다.

방송위원회가 갖고 있는 권한으로는 편성·광고 등 방송의 일반준칙에 관한 사항, 방송조사연구 및 연수, 시청자 불만처리 등이 있는데 가장 큰 권한은 방송내용의 공정성 등에 대한 심의·의결권이다.

그런데 이런 방송위원회의 권한에 대해 현직방송인들은 대개 다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 이는 방송위원회가 권한을 사용할 때와 안할 때를 가리지 못하고 편파적으로 적용하기 때문이다.

편향되지 않고 역사를 올바로 조명한다는 평가를 받았던 문화방송 드라마 '땅'에 대해 '위화감 조성', '계층간 갈등조장'을 이유로 시파방송과 연출자, 담당제작국장에게 징계를 내리게 한 후 결국 18회만에 도중하차하게 하는 등 연간 7백건쯤 시정·제제조치를 내리고 있는 방송위원회는 선거기간 동안 방송의 공정성에 대해서는 한번도 제대로 그 권한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14대 국회의원 총선때 이순재씨의 드라마 '사랑이 뭐길래' 출연에 대해 간접연성을 한다는 여론이 쏟아지자 방송사의 재량에 맡긴다고 희피해 버리고 방송계에서도 편파방송 일색이었다고 인정하는 선거방송에 대해서 사후보고서를 통해 '편파방송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또다시, 대선을 앞두고 문화방송 뉴스와이드에서 내무부 장관이 나와 지자제선거연기를 12분동안이나 홍보해도 '정부가 홍보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판정을 내리고 '김영삼 민자당총재 취임식'을 방송 3시가 일제히 중계해도 아무런 문제될 것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다.

현직 방송인들은 묻는다. "추상적이고 모호한 방송심의규정으로 함부로 심의의 칼날을 휘두르면서 왜 재심의 규정을 만들지 않았는지, 또한 관계자·연출자를 징계하는 규정은 방송사의 경영권과 인사권을 부인하고 방송의 자율성을 송두리째 뺏는 월권, 위헌이 아닌가?"

그 밖에도 방송위원을 정하는 범조항부터 다양한 국민대표를 방송위원으로 들 수 있도록 바꾸고 방송의 독립성·자율성을 짓밟는 각종 독소조항들을 전면 수정하지 않는 한 방송위원회는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을 담보한다는 설립목적을 제대로 실현할 수 없다는 것이 현직방송인들의 일반적 시각이다.

그들은 방송위원회가 제편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올면서 마지못해 영터리 프로그램을 내보낼 수 밖에 없다고 한다. 하지만 손주환 공보처장관은 지금 언론은 언론자유를 만끽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한다. 언론은 통치기구의 일부이며 국가경영에 협조해야 된다는 공보처장관의 언론관은 우리 언론이 처한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정지혜 기자〉

기자의 눈

공명선거의 파수꾼

"공정선거 확보와 이를 통한 진정한 민주사회 건설을 위해서는 공정선거보도 쟁취 투쟁이 중요한 과제임을 거듭 확인하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지난 4일(금) 오후 7시 서울 마포구 아현 3동에 있는 민주언론운동협의회 사무실에서 대통령선거보도 감시운동을 위한 '선거보도감시연대회의'(이하 선감연)의 출범식이 거행되었다.

언론감시 활동을 하고 있는 시민단체와 언론학자 및 언론민주화에 관심있는 일반 시민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선감연은 이번 활동제개 목적을 "앞으로 있을 대통령선거가 끝날 때까지 언론의 불공정보도를 국민들 스스로 감시하여 공정한 선거보도를 이룩하는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언론이 언론인들의 손을 떠난 지금 국민의 힘으로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14대 총선 때의 활동성과를 바탕으로 잘못된 점은 개선하면서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나고자 합니다. 우리는 후보의 입장이 아니라 국민의 눈으로, 후보의 당락보다는 다수 국민의 민생민권 문제를 부각시키는 보도가 되도록 힘쓸 것입니다"라고 선감연의 구성원들은 말한다. 아울러 이들은 선언문 낭독을 통해 이번에는 특히 향의방문, 향의전화운동을 대규모로 전개해 부당 언론행위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언론사내 양심적인 종사자들의 자성·협조도 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한다.

선감연은 이후 사업방향으로서 신문·방송 모니터 활동 및 보고서 작성, 선거보도감시연대회의 소식지 및 홍보지 발간, 선감연 활동을 알리는 대공연사업(참언론 한마당)과 선거이후 심포지엄 개최 및 자료집 발간사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그외에 선감연은 이번에 개최된 대통령선거보도 감시운동에 대해서 대통령 후보 선출, 지방자치장단체장 선거연기, 제14대 국회의원, 북한 핵사찰, 정보사터 매매의혹 사건, 지방자치 단체장 선거연기, 한·중수교 등 주요 사안을 신문비평 보고와 모니터 보고(방송)로 나누어 평가하고 이들중 지적된 점을 논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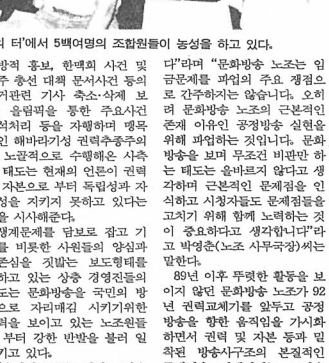
이번에 민주언론운동협의회가 개최한 선감연의 의의는 대선을 앞둔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큰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다.

그것은 현재 전행되는 문화방송노조 파업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언론의 공정보도는 바로 국민의 올바른 알 권리를 뜻하는 것이기에 대선을 앞둔 언론민주화는 정권교체기의 커다란 관건이 아닐 수 없다.

이제는 국민 한사람 한사람이 언론의 감시자가 되어야 한다는 자각속에서 대선을 앞둔 선감연의 활약을 기대해 본다.

〈정공영 기자〉

외대만평



형제제전—모래성 쌓기

인간존중의 경영

럭키금성 기업문화 '脫'시리즈—③
럭키화재 국내최초 미국지사 개설편

脫
固·定·觀·念
외국자본 국내진출의 위기를 우리자본 외국진출의 기회로 역전시켰습니다

금융개방 압력에 맞선 한국 보험업계 최초의 미국 진출 — 문단속에 연연하는 우를 범하기보다는 세계의 금융 심장부에 먼저 뛰어드는 적극적인 자세로 개방시대의 위기를 극복해가고 있습니다. 틀에박힌 사고를 버리고 개척의 정신으로 뛰는 젊은 인재들 — 럭키금성의 진취적인 기업문화 속에서 시대의 새로운신화를 창조해가고 있습니다.

국내 보험업계 최초, 미국지사 개설 실무담당
럭키화재 이종욱 과장 —

"외국자본이 들어온다고 겁질만 해선 됩니까? 우리도 큰의 꿈을 만들어야 합니다. 최선의 준비의 최선의 수비 아닙니까" 이래 금융시장 개방에 대비 88년 부터 세계 금융의 중심지 뉴욕에서 미국지사 개설이라는 특수임무를 맡고 활동을 해오던 럭키화재 이종욱 과장 — "세계에서 가장 까다롭다는 뉴욕 보험청의 높은 콧대를 넘고 마침내 현지 지사 개설 허가를 받았을 때 감격스러웠습니다. 문단속에만 연연했더 나라면 외국의 일방적인 압력에 맞서 "개방의 압력 물러라! 외국자본에 맞서 줄수 없다"라는 세계시장의 문을 열고 당당히 어깨를 겨누는 이종욱 과장은 도전과 극복의 기회를 한발 앞서 실천하는 패기있는 젊은이이다.

럭키금성

표류하는 외대! 학원자주화로 살리자 〈세 번째〉

보되기획

정경유착속에 멍들어가는 학원

정권의 학원탄압은 84년 이후 재단 간접통제로대체

학원 소유와 경영분리로 전문적·민주적 학사운영 필요

89년 고대 분규당시 총장선출을 저지하는 학생측과 교수간의 몸싸움 모습 〈사진제공·말〉

한국 사립재단의 성격

한국사회의 사학은 정치, 사회의 변동과 그 궤를 같이 한다. 1945년 일제의 물러남과 동시에 대리 통치를 시작했던 미군정이 친미세력을 이용하여 효율적인(?) 통치를 수행했듯이들 지배권력은 사립학교법과 재단을 통하여 자신들의 정통성을 교육해 왔다.

대다수의 사립학교 재단은 60~8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이러한 국가권력을 등에 업고 무소불위의 권능을 행사하며 막대한 부를 교육사업을 통해 획득해 왔다. 국가는 이를 '대학의 자율화와 민주화'라는 이름을 통해 효율적으로 조절하여 통제의 수단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다시한번 살펴봐야할 것은 84년 이후 대부분의 대학에서 국가권력의 직접적인 통치가 후퇴하고 교육부의 정책과 재단의 간섭이라는 간접적 조절통제로 대체됐음이다. 이는 각 단위대학의 학원자주화에 대한 수위가 높아지게 되면 사립학교법과 교권이라는 미명아래 국가의 공권력이 투입된다는 도식을 통해 국가권력과 사립재단의 교분(?)을 재증명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90년 세종대의 공권력 투입은 학내 문제를 시작으로 확산됐다는 것이 이를 입증한다—

사립재단의 출발은 여러가지 형태를 지닌다. 국립서울대와 같은 경우는 일제시대부터 효율적인 고급노동력을 생산하는 것과 조선 민중들의 회유책을 병행하기 위해서 설립됐는가하면 비교적 민족적인 색채가 강한 고려대, 동국대, 조선대 등도 있다. 또한 서양자본에 의해 설립된 신촌 주위의 대학들과 한신대 등은 서구적인 설립 배경 속에서 나름대로 한국 민주화에 공헌한 바가 크다. 그러나 이들 대학도 토착자본세력에 의해 설립되고 한국전쟁 이후 급속도로 팽창되어 오면서 이들 대학의 재단이 단순히 '육영사업'을 목적으로 두고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었고 학내 제주체들과의 끊임없는 공방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현 사립재단의 운영실태

한국 사립재단은 설립배경과 함께 재단이사장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된다. 이는 육영사업 차원으로 대학을 설립하고 이를 전문인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직접 학교경영에 관여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점이다.

혼히 교주(校主) 총장이라고 불리우는, 설립자가 총장인 경우는 수원대, 명지대, 경희대, 광운대 등이다.

학교재벌이라 불리우는 명지학원의 설립자 유상근씨의 경우 59년 내무부 통계국장, 63년 명지대 학장, 75년 통일원장관, 82년 명지건설회장, 78—88년 명지학원이사장, 88년 명지대 총장, 88년 사학법인연합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그의 약력을 본다면 한국 재일의 사학인으로 손색이 없는 것이다. 하지만 명지대의 한 교수는 "유총장은 수천명의 부정입학자를 통해 학교장사를 해왔다"며 개탄을 하기도 했다. (월간 말 90년 5월호 발췌)

이와함께 집무실에 이승만전 대통령의 초상화를 계속 걸고 있었다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진 이야기이다.

정치권 인사들이 대학의 실권을 쥐고 있는 경우도 상당수이다. 83년 부터 3년간 1백34명을 부정입학시켜 물의를 빚었던 원주 상지대의 이사장은 김문기(민자당 의원)씨이며, 초대 문교부 장관을 지낸 안호상씨는 71년 이후 한성대 이사장을, 10·26 이후 문교부장관을 지냈던 김옥길씨는 86년 이래 이화학당 이사장에 올랐다. 또한 박태준(현 민자당 최고위원)씨는 포항공대의 재단이사장을 맡고 있다.

재벌기업 총수로써 사립대학 재단이사장을 맡고 있는 경우는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형태이다. 신동아그룹의 최순영 회장은 84년 전주대를 포함하는 영생학원을 인수했으며 천안호서대의 2대 이사장을 지냈다. 그리고 한진그룹의 조중훈 회장은 인하대 이사장, 그의 동생인 조중건 대한항공 사장은 한국항공대 이사장을 맡고 있다.

또한 현대그룹의 정주영 명예회장은 70년 한·영협정에 의해 세워진 울산공대의 이사장을 지냈고, 현재는 울산대로 승격되어 그의 아들 정몽준이 이를 계승했다. 특히 정몽준씨는 올해 등록금협상 과정에서 학생들의 울산시내에서의 '재단비리척결' 인쇄를 배포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기도 했다. 또한 울산공대는 제2대 이사직을 전 중앙정보부장이었던 이후락씨가 역임하여 정경유착의 모습을 단적으로 드러냈다.

87년 7백억원의 부채를 짊어진채 부도를 냈던 중앙문화학원(중앙대)의 인수과정에서는 기업들의 자산증식 방안으로 대학을 이용하고 있다는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당시 중앙문화학원을 인수한 재일동포 김희수씨는 "일본서 악착같이 번 돈을 고국의 육영사업에 쓰겠다"며 그 취지를 밝혔으나 이후 장기발전안으로 내세운 부분이 대폭 축소되어 폐기처분됐으며, 약속했던 45억원의 재단전입금 중 절반도 들여주지 않았다.

위에서 열거한 바와 같이 사립재단은 설립자 혹은 재단이 임명하는 이들에 의해서 경영되어왔다. 이러한 경영모습은 학내 제주체들과의 관계속에서 '학원의 사유화'저지라는 측면에서 재단과 장기적인 진통을 겪어야 했고 재단은 그들의 이익보호를 위해 정권의 보호막을 이용하고 있다.

또한 재단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가장 큰 비밀목으로는 90년 3월17일 개악된 사립학교법이 있다. 사립학교법 개악 당시 한국사학법인연합회와 대학교육법인협의회 회장을 맡았던 명지대 유상근 총장은 이와관련된 따가운 눈총을 받아야 했으며, 더욱 지탄의 대상이 되었던 당시 국회 문공위의 김인권 의원(민자당)의 경우는 "정부가 불법으로 가져간 권한을 빼앗아 온 것 뿐이다"라고 발뺌했으나 김의원은 공교롭게도 광주대학의 재단이사장을 맡고 있었다.

이들 두사람은 88년 당시 전국교사협의회,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사립대학교수협의회연합회 등의 3개 교원단체가 교육관계법(교육법,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등)의 개정안을 작성하여 국회에 청원하였고 이를 야권3당에서 단일개정안으로 상정할 당시 법안의 상정을 막고 별 설명없이 전격 개악통과 시키는데 최일선에 있었다는 것이다.

〈대학부〉

◇'인류평화를 위하여' 거듭난 세민전을 평가하며

본교 대외적 위상 높힌 외대의 자존심

'인류평화를 위하여!'라는 주제하에 개최된 '92 세계민속예술축전(이하 세민전)이 재학생, 교수, 동문 등 많은 외대가족의 관심속에 3일간(6월3일~5일)의 공연을 무사히 마치고 그 막을 내렸다.

당초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적잖은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우려되었던 안전사고 없이 마치게 된 것은 무척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제 세민전을 마치고 난후 지난 준비과정에서부터 공연행사의 마지막 순간까지를 돌이켜, 세민전 이후의 발전적 대안을 위한 일로 이번 세민전의 개략적 평가를 하고자 한다.

먼저 세민전의 성과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몇가지 요약해 본다면 첫째 전체 출연진, 참가자 학생들, 세민전의 과정을 관심깊게 지켜본 학생들이 몸으로 느끼게된 외대인으로써의 자긍심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본교의 구성원으로 스스로의 성취감이 더해져 외대의 주인임을 자각하고 보다 적극적이며 자주적인 대학생활을 이끌어 나감에 보탬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둘째 학내 존재하고 있는 각급 단위 문화역량의 발굴과 정비를 통하여 용인캠퍼스 문화예술 운동의 발전을 꾀할 수 있는 물적토대를 만들어 냈다는 것이며 이후 보다 많은 학생들이 학내 문화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이다.

셋째로는 각국대사를 포함한 많은 내외 인사들의 관람으로 외대의 대외적 위상을 높이게 된 것이며 아울러 3개 방송사와 20여개의 주·월간지 및 일간신문에 게재 되어 외대의 특성을 대외에 소개하게 된 것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외 전체 외대 동문들에게 재학시설의 향수를 느끼게 함으로써 모교에 대한 애착과 자부심을 다시한번 상기시켰으며 재학생과 동문을 잇는 연결고리로 기여한 점, 그리고 각 기업체와 고교생을 상대로 한 홍보 등으로 얻어지게 된 성과물이 있으며 이는 행사이후 더욱 부각되고 있다.

세민전이 그자체로 여러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이와는 반대로 제기되어지는 문제점도 여러가지 노출되었다.

먼저 각급 학생회와의 유기적인 결합의 미비를 지적할 수 있다.

학생회와의 결합 방도를 가지고 많은 고민이 있었으나 뚜렷한 대안을 찾지 못한채 학생회 사업 따로 공연준비 따로의 형식이 되어 버린 것은 준비일정과 재학생들의 공연관람의 문제에서 단적으로 그 문제의 깊이가 나타나게 된 것이라 하겠다.

둘째로 행사 1개월전까지도 대학당국의 소극적인 자세로 인하여 행사준비의 차질을 빚게된 것이다. 이는 학생들의 행사에 적극적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대학당국의 편협한 태도로 지적될만 하다.

셋째로 준비위원회의 인원 부족과 전무한 이전 세민제의 근거자료 등으로 인한 수많은 시행착오도 마땅히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 중의 하나였다.

그중 사전 정보 부족으로 인한 회관측과의 마찰, 예정된 진행요원들의 불참으로 인한 진행과정의 어려움, 그리고 4백여 출연진들의 통제문제 등이 지적될 수 있겠다.

무엇보다도 대관장소의 규모가 예상보다 협소했던 것은 값비싼 대관료를 생각하면 참으로 아쉬운 부분이었으며 이후 세민전은 반드시 공연전 최소 6개월 이전에 대관을 마쳐 대관 장소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92세계민속예술축전

준비위원장 정보영

〈서학·이태리어졸업〉

용인문화운동의 물적토대로 작용

대관협소·학교 보조비가 문제로 지적

향수병

○…'한국형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못공직자들이 옛날 공식을 도용한 것이 드러나 민초들의 원성이 자자한데,

양심선언한 연기군수가 밝힌 바에 의하면 '여당총수가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는 구호아래 각 시·도의 공직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인 것이 백일하에 드러난 것.

자유당은 갔건만 아직도 향수병에 찌든 그대들은 제2의 민중봉기가 역사의 해답을 줄 것임을 각인 하시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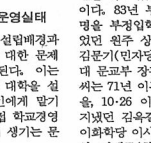
○…왕산벌 대운동장에 온천수가 솟은듯한 커다란 구멍이 뚫려 흉산을 한때 긴장.

크로니를자 알아본즉 확장공사 도중 배수관으로 지하에 묻은 플라스틱판이 공사차량 무게를 이기지 못해 내려앉아 물난리를 겪으며 공사가 지연되었다고.

아 저 씨들! 흉산들 체중은 나비처럼 운동장을 훨훨 날만큼 가볍지 않다구요!

○…요 즘 참교육 일기예보에 최마바람이 서서히 멈추면서 쾌창한 날씨를 보인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어.

알아본즉, 육성회비동 찬조비를 올리려는 교육당국의 무리한 시도가 학부모들의 반대에 부딪혀 실패한 것이 그것.



학부모들이 미래를 위해 참교육, 교육대개혁 등의 선물을 싣고오는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수레'를 뒤에서 힘껏 밀어주면 한국교육계의 앞날은 언제나 쾌청할 터.

○…안 보이는 곳에서만 기가 막히게 나쁜 것만 골라하는 부랑배(?)들이 도일을 저질러서 민초들 분노가 높다는데.

안기부가 전 민중당대표 김낙중씨와 가족들을 사전영장없이 납치, 헌법마저 무시해 버렸기 때문.

아무리 간첩협의라지만 '빨갱이' 갖다 붙이며 인권을 유린하는 그대 안기(安家), 국보법철폐되고 민주정부수립되면 '빨갱' 벗겨져 형사법으로 처벌될 것임을 아시압.

○…백주 대낮에 폭력범들이 합법적으로 날뛰고 있다는데,

사연인즉, 지난 5일 성남에서 열린 '부정선거규탄과 지자체실시를 위한 시민·학생 궐기대회'에서 잡조들이 진압봉이며, 철근든 죽도 등을 마구 휘둘러 많은 학생이 크게 다쳤다고,

피흘리며 병원가는 부상자까지 연행하려고 혈안해 있는 그대들은 분명 법먹는 인간이 아니라 민초들 피빨아먹는 흡혈귀임에 분명.

과격 잡조권(?)

비둘기칼판

■92년 FBS 2학기 정규 방송 편성표

(이문)

	월	화	수	목	금
아침 8:30 -9:00	아 침 의 산 책 FBS 아침 News				
점심 12:30 -1:00	FBS 낮 News				
	음악가이드	성북동비둘기	음악이 있는 곳에	르뽀 '92	FBS 종합뉴스
	기자칼럼	읽어보셨습니까		광대의 고언	
저녁 4:50 -5:30	FBS 저녁 News				
	들불의 노래	창가에 흐르는 소아곡	FBS 퀸치	FBS 대담 현장에 선 사람들	시인의 노래
	스크린의 세계	PD 논단	FBS 드라마	미네르바 사색	무대와 객석

(왕산)

	월	화	수	목	금
아침 9:20 -10:00	뉴스·캠페인. 잠깐 한마디				
	아 침 의 산 책				
점심 12:30 -1:10	뉴스·캠페인. 잠깐 한마디				
	캠퍼스 풍속도	외대논단	Around the World	취재수첩 207 만나봅시다	딱따구리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젊음의 메아리			여기는 기술실
					FBS 종합뉴스 (TV)
오후 4:00 -5:00	뉴스·캠페인. 잠깐 한마디.				
	클라식의 선율	음악이 있는 이야기	팝 페이트 (Pop Fete)	영상 음악실	PD 칼럼
					FBS 드라마 (Drama)
					전통의 향기

광고난은 외대학우들의 것입니다. 알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 항상 비둘기 칼판을 이용해 주세요. 광고료는 받지 않습니다.

광고신청: 서울—본사기자실(학생회관203호)
용인—본사기자실(학생회관212호)

왕산골

■비행의 꿈을 펼쳐보세요
하늘사랑에서 당신의 꿈을 펼쳐드리겠습니다 주저하지 마세요.
〈행글라이딩 하늘사랑〉

■노래 신입회원 모집
노래를 사랑하는 자연대 학우여러분 언제든지 오세요.
〈자연대 노래패 한우리〉

■이름을 공모합니다
여성문화제의 이름과 상징도안을 총여학생회로 보내주세요. 당선된 작품에는 상품을 드립니다.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성노래한마당에 여학우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초청가수는 신형원이고요 상품도 푸짐합니다.
대상: 여학우들만
참가부분: 애창곡·노가바·창작곡·악기연주
신청기간: 9월14일(월)~10월6일(화)
신청하는 곳: 단대 여학생회나 총여학생회
〈총여학생회〉

용인, 오늘 학생총회 개최

2학기 총노선 인준, 사업목표 설정

용인캠퍼스는 오늘(8일·화) 2학기 정기학생총회 및 총학생회 진군식을 갖는다

용인캠퍼스 총학생회는 오늘(8일) 노천극장에서 '2학기 정기 학생총회 및 총학생회 진군식'(이하 총회및 진군식)을 개최한다.

오후 1시30분까지 각 과별 모임을 갖고 풍물패의 길놀이와 함께 2시30분부터 시작될 오늘 총회및 진군식에서는 학대운영회의(이하 운영회의)에서 결정된 2학기 총노선에 대한 인준과 함께 각종 문화공연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총회및 진군식에 앞서 지난 8월 27일(목) 각과회장을 포함한 각단위 직선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운영회의에서는 총학생회가 2학기에 학생들과 함께 추진해 나갈 사업목표인 총노선으로 △자주적학생회 구현 △자주학원 건설사업 △민주정부 수립투쟁 등을 정리했다.

자주적학생회 구현은 지난 1학기를 평가하면서 '학문·생활·투쟁의 모든 영역에서 학생들의 참여와, 그들을 주인으로 서게 하는 데는 아직도 오류와 한계가 많았다'는 반성속에서 제기됐으며, 이를 실현하는 구체적인 목표로 '각종 소모임에 정례적으로 결합해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후 다양한 내용의 간담회를 준비할 것'을 결의했다.

자주학원건설 사업을 위해서는 올해 2학기 학원자주화 투쟁의 중심사안을 '1학기 투쟁의 오류와 한계점을 극복하고 지속적이고 상시적인 투쟁이 될 수 있도록 기본 토대를 마련하는 것'으로 설정했다.

이로써 2학기 학원자주화투쟁은 학민합의사항 이행 촉구 투쟁을 중심으로 교육과정개편, 학사행정 참여투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정부 수립투쟁을 위해서는 현존 총학생회 산하 사회부를 해소하고 선봉대 체계로 전환하면서 지속적이며 상시적인 투쟁을 전개해 나갈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학생회는 '그간 투쟁일변도의 사업기조를 탈피하고 학생들의 일상요구를 담아내는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자체조직 강화로부터 대선투쟁을 준비할 것'을 결의했다.

이러한 문제점은 기간 학생회 활동이 학생들의 생활공간에서 부터 제기되는 요구를 받아 안기보다는 하반기로 갈수록 정치투쟁 일변도로 귀착되면서, 학생회와 학생들의 이해와 요구에서 멀어진 모습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는데, 92년 2학기 총학생회의 사업을 불때 해결하려는 노력이 어느 때보다 돋보인다.

특히 오는 12월 대선을 앞두고, 학생회의 터전인 학원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사업의 중심으로 두는 것은 이후 대선투쟁을 대중적으로 전개해 나갈 수 있는, 기간 동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용인캠퍼스 총학생회의 2학기 사업일정은 9월21일(월)부터 10월1일(목)까지 단대제, 10월16일(금)부터 18일(일)까지 추계동활(경기도 여주군)로 이어지며 10월26일(월)부터 30일(금)사이에는 각 단대 학생회장과 총학생회장 선거가 있을 예정이다.

한편 서울캠퍼스는 오는 19일(토) 학대운영위원회를 열고 21일(월)부터 23일(수)사이에 각 단대별 진군식이, 24일(목)에는 총학생회 정기학생총회 및 진군식이 개최될 예정이다.

서울 시청각 교육원 세미나실 신설

서울캠퍼스 시청각교육원이 지난 1일(화)자로 시청각세미나실 신설등의 시설 확장을 완료했다.

비디오 시설을 겸비한 3개교실에는 언어실습실의 증설이 이루어졌고 사운드라이브러리에는 좌석이 24석 증설되어 총 1백46석으로 늘어났다.

'자원 재활용운동' 전개 용인대생협 주관

용인캠퍼스 대학생활협동조합(대생협)은 2학기 사업으로 '자원재활용 운동'을 전개한다.

폐품으로부터의 지구환경보호를 위해 실시하는 이 운동은 컴퓨터용지, 고지 등 폐지수거 작업과 폐건전지, 캔분리 수거 사업 등을 내용으로 한다.

수거방법은 자체제작한 수거용기로 대생협 근로복지장학생을 중심으로 하게되며 대학 생협 건준위에서 전체수거를 하여 재생·사용하게 된다.

현재 대생협이 운영하는 각 매점에서는 재생용지로 만든 보고서, 원고지, 노트 등을 판매하고 있다.

민주주의 민족통일 성남연합은 지난 9월5일(토) 시청앞에서 부정선거 규탄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즉각실시를 위한 성남시민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용인캠퍼스 1백여명의 학생들을 비롯한 시민·학생 6백여명이 참석한 이날 대회에서는 △6공특혜비리사업 공개조사 △지방자치단체장선거 즉각실시 △3·24총선 부정선거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을 물어 노태우대통령과 김영삼후보의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했다.

이날 경찰의 시청앞 집회 저지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약식집회를 가지고 중앙시장, 신구전문대를 거쳐 상대원시장까지 시민들에게 유인물을 나눠주며 가두행진을 계속했다.이과정에서 전투경찰의 진압봉, 철근이든 죽도, 최루액가스 분출기 등으로 많은 학생들이 크고 작게 다쳤다.

〈사진부〉

학과움직임

◎서울 일본어과, 22일(화)부터 원어 연극상연

서울캠퍼스 일본어과 학생회는 22일(화)부터 이틀간 '출세기(원작·윤대성)'를 일본어 원어로 상연한다.

◎용인 사학과, 17일(목)부터 19일(토)까지 '추계고적답사' 실시

용인캠퍼스 사학과 답사추진위원회는 17일(목)부터 19일(토)까지 안동, 영주, 문경 등 경북일대에서 '추계고적답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용인 폴란드어과, 오늘(8일) 세미나 개최

용인캠퍼스 폴란드어과 학생회는 오늘(8일·화) 교양학관 201호실에서 '현 동구사회의 이해와 변화의 전망'이라는 세미나를 개최한다.

◎서울 태국어과, 동문 장학금 수여식 가져

지난 4일(금) 오후5시 서울캠퍼스 태국어과 과사무실에서는 92학년도 과동문 장학금 수여식을 가졌다.

동아리 소식

◎용인 손말사랑회, 수화홍보전 개최

용인캠퍼스 손말사랑회는 지난 9월2일(수)부터 3일(목)까지 이틀간에 걸쳐 수화율동을 학생들에게 홍보했다.

손말사랑회는 학생회관 앞에서 열린 이번 홍보전에서 '백두산'등의 노래에 맞춰 수화를 하며 학생들에게 청각장애자를 비롯한 모든 장애자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부탁했다.

추가 등록기간 16일까지

추석 연휴 후로 연기 조정

추가등록기간이 9월 16일(수)까지 곧 연장되었다. 본래는 9월 3일(수)부터 9월 9일(수)까지로 되어 있었으나 몇가지 학생들의 불편이 예상되어 이와 같이 조정되었다.

이는 추가등록기간과 분할등록기간 분리되어 있지 않고 특히 추석연휴기간과 겹쳐 상당수의 지방학생들이 추석 이후에 등록하려 하고 있어 1주일 늦춘 것이다.

서울 복학위 복지장학생 모집

서울캠퍼스 학생복지위원회는 지난 9일(월)부터 15일(화)까지 각 과별로 복지장학생을 모집한다.

복지장학금은 가정형편이 곤란하거나 학생회 활동에 공헌도가 높은 학생중 다른 장학금을 수혜받지 않는 학생들을 대상으로하며, 총 1천1백20만원을 56명에게 각 20만원씩 지급하게 된다.

서울 총학 기관지 '외대사랑' 창간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에서는 '외대사랑'이라는 제호의 기관지를 창간했다.

총학생회 사업을 학생들에게 홍보하고, 학생들과의 공감대 형성 증대를 위해 지난 4일(금) 창간호를 발행한 이 신문은 타블로이드판 4면으로 구성되었으며 주간 발행을 원칙으로 하나 이는 유동적이다.

지금까지 총학생회 사업 홍보의 수단이었던 단순유인물, 대자보 등의 제한성을 극복하고 체계적이고 연속적인 발행으로 학생들에게 사업내용을 적절 전달 할 것으로 보이며 이후 전개할 학원자주화투쟁에서 총학생회와 학생들 사이의 연결고리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양캠, 독자적 선봉대 조직

2학기 학자투와 대선투쟁 중심

서울·용인캠퍼스가 모두 선봉대 조직을 새롭게 꾸리고 2학기 학원자주화 투쟁과 대선투쟁을 중심으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서울캠퍼스 '외대사랑 선봉대'(이하 외선대)는 오는 22일(화) 발대식을 앞두고 지난 7일(월) '외선대 힘모으기대회'를 갖고 공식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현재 준비상태에 있는 외선대는 학생회 조직강화와 2학기 학자투쟁의 과정에서 학생들을 대상화 시킨 형식적인 선전과 내용공유가 아니라 지속적인 교양을 해 나가는 것을 자기목표로 한다.

또한 외선대는 학자투쟁의 과정에서 서울·용인캠퍼스의 단결과 연대를 위해 현재 서울캠퍼스에서 제기되고 있는 캠퍼스 이전의 문제등 주요 학자내용을 용인캠퍼스로 찾아가 직접 선전하는 방법도 구상중이다.

한편 용인캠퍼스 '조국사랑 선봉대'는 지난 3일(목) 노천극장에서 총회를 가졌다.

줌더 많은 학생들로 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는 자주적 학생회 구현을 위해 건설된 '조국사랑 선봉대'는 기존의 총학생회 사회부를 해체하고 각 단대, 단위별로 새롭게 조직됐다.

이날 총회에서는 공식명칭을 '조국사랑 선봉대'로 정하고 2학기 투쟁사업기조 인준과 대선을 앞두고 민주정부수립에 대한 결의를 다졌다.

상설적인 투쟁체인 조국사랑 선봉대는 진군대, 선전선동대, 문예선봉대 등 세개부문조직으로 나누고 이후 지속적인 활동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보직 교수 이동

본교 대학당국은 지난 9월1일(화)자로 일부 교원의 인사이동을 결정했다.

새롭게 보직에 임명되는 교수는 다음과 같다.

▲서울캠퍼스 교무처장:김명수(행정)교수
▲용인캠퍼스 학생처장:차상호(태국어)교수
▲동양어대학 태국어과 과장:김영애교수
▲자연과학대학 전산학과 과장:김차성 교수
▲대학원 행정학과 주임교수:김창준교수
▲통역대학원 독일어과 주임교수:홍승우교수
▲통역대학원 아랍어과 주임교수:홍순남교수
▲교육대학원 독일어교육과 주임교수:오한진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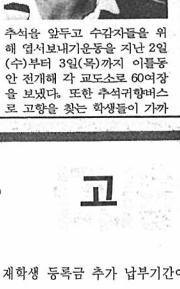
이사람

"전국에서 6공이후 가장많은 학생들이 구속·수감된 우리학교에서 아직껏 그들에 대한 정신적·물질적 배려와 관심이 없었던 것이 너무나 가슴아프다"

지난 8월초부터 서울캠퍼스 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를 건설하기 위해 준비중인 전갑기(상경·경영4)군의 말이다.

지금까지도 본교에서 조직사건이나 시국사범으로 많은 학생들이 구속·수배 상태에 있고 특히 작년 6·3투쟁으로 구속수감중인 8명의 학생들은 옥중에서 조차 일반폭력범 취급을 받으며 이중으로 고통받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이들은 외면당하고 잊혀지고 있는것이 현실이다. 이에대해 전군은 "함께 캠퍼스안에서 공부하고 생활하던 친구들이 큰 시련과 고통에 힘들어 할때 우리는 그들에게 아속하리 만큼 무관심 했다"면서 학생들의 개인주의적인 사고와 섭게 잊고 지내는 모습에 안타까와했다.

그래서 인권위준비위에서는



추석을 앞두고 수감자들을 위해 엽서보내기운동을 지난 2일(수)부터 3일(목)까지 이틀동안 전개해 각 교도소로 60여장을 보냈다. 또한 추석귀향버스로 고향을 찾는 학생들이 가까운 지역에 있는 교도소나 구속자가족을 방문하는 행사를 준비중이다. 앞으로 학생들이 구속자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높이기 위해 구속자를 위한 개인별후원회를 각과, 단위별로 조직할 계획이며 한달에 한통씩 편지쓰기운동, 엽서금마련을 위한 모금활동 등도 전개할 예정이다.

"함께 생활하던 친구들이 큰 시련에 힘들어할 때 우리는 그들에게 야속하리 만큼 무관심했다"

〈서울 캠퍼스 인권위 준비위원 전갑기군을 만나〉

이제 막 점음마를 시작하는 인권위준비위에 대해 전군은 "아직 준비위원회라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모임이지만 다가오는 총학생회 출범식에서 학우들에게 인권위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알려나가 내년 초에는 꼭 정식발족을 가질 것"이라고 다짐한다. 인권위가 정식발족을 하게되면 구속학생들에대한 후원뿐만 아니라 학내 모든 인권유린사태와 여성차별문제도 다루어 나갈 예정이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그저 구속자나 수배자만을 위한 인권위라는 잘못된 인식을 깨우쳐 많은 학생들의 참여와 관심속에 이뤄지는 인권위의 본래취지를 알려나갈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전군은 "바에있는 우리가 안에 갇혀있는 구속동지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며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보낼때 그들이 학교로 되돌아오는 날 우리는 반갑게 그들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라며 말을 맺는다.

〈이현재기자〉

서울 총학 생활정보 대자보판 설치

서울캠퍼스 도서관 입구에는 이번주 내로 생활정보만을 취급하는 대자보판이 만들어지게 된다.

새로 만들어지는 '생활정보 대자보판'은 그동안 총학생회 설문조사 과정을 통해 많은 학생들이 제기해온 것으로, 학생들끼리 자취방정보를 소개하거나 이용가치가 떨어진 물건을 매매하는 등 각종 생활정보를 서로 교환하는 용도로 쓰이게 된다.

〈고 침〉

본보 585호 '용인117번 및 양재노선 중차시급' 기사의 사당·양재 노선에 운행하는 지입제버스 차량대수를 5대에서 8대로 고침니다.

공 고

1992년도 제2학기 재학생 등록금 추가 납부기간이 아래와 같이 연기되었음을 공고함.

아 래

1. 등록기간:1992년 9월 16일(수)까지
2. 등록장소:국민은행 전국 각 지점
   제일은행 전국 각 지점
3. 등록금액:등록금 고지서 참조
4. 장학금 수혜 학생은 장학증서와 함께 은행에 납부할것.
5. 등록금 영수증은 재발급하지 않으므로 소중히 보관할 것.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캠퍼스 경리과 (구내 4043, 4044) 및 용인캠퍼스 경리과 (구내 4043)에 문의바람.

1992년 9월

재 무 처 장

내가 없으면 우리도 없습니다

— 1992년 제2학기 정기학생총회 및 총학생회 진군식을 개최합니다.

때 :9월8일(화) 늦은 2시30분
곳 :노천극장
안건:자주적 학생회구현, 자주학원 건설, 민주정부수립 투쟁등의 2학기 사업목표와 일정을 함께 논의합시다.

·2학기 총학생회의 모든 사업은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담아 함께 추진해 나갈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만 우리의 자랑찬 학생회의, 자주학원의, 민주정부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없으면 우리도 없습니다

제/13/대/일/대/도/약/총/학/생/회

□수필

장 맛을 은은히 우려내는 뚝배기 사랑

오늘은 9월 하고도 2일. 입추가 지나도 한참 전에 지났건만 대지를 덮히는 열기는 여전히 식을 줄을 모르고 마지막 발악인 양 끈끈하게 사람들을 학대하고 있다. 유난히 오늘 더 더위와 갈증을 느낌은 단순한 자연현상으로서의 더위가 물리적으로 나를 괴롭히기 때문만은 아니다. 오히려 정신적인 더위에 더욱 갈증을 느끼는 것이다.

정확하게 다섯 해 전 오늘은 영원히 잊지 못할 사건으로 맞이한 하루였다. 군입대/ 하기사 대한민국에 적을 두고 특별한 신체상의 하자나 가정상의 하자가 없는 한 누구나 다가는 군대에 가는 날이었건만, 나는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정신적인 방황을 해댔다.

이제는 이심판개월 열하루라는 단절된 시간과 그 가위눌림에서 벗어난 두 해 여덟 달이라는 세월이 나에게 있건만, 아직도 오늘을 가리키는 9월 2일이라는 달력상의 표시는 나를 옥죄고 있다. 잊었거니 무심하면 '빌엉뱅이 끼니 찾아오듯' 어김없이 찾아드는 예비군 훈련과 후배들의 줄을 이은 군입대가 나를 자유롭지 못하게 한다.

1987년의 여름은 무척이나 치열하게도 더웠다. 6·10항쟁, 이한열군의 최류탄 직격탄에 의한 사망, 연일 계속되는 민중들의 민주쟁취를 위한 가두시위, 6·29…, 그리고 맑은 하늘의 날벼락같은 입영영장. 까뮈의 소설 이방인의 주인공이 작열하는 태양빛에 노려쇠를 당겨 살인을 했듯이, 나 역시 숨구멍이 턱턱 막히는 더위와 갈증에 미친듯이 방황을 해댔다. 무슨 짓을 하면 이 영장을 무효로 만들고 군대에 안갈 수 있을까? 나의 뇌세포는 오직 이 생각만을 위해 존재하는 듯했다.

형이 있었지만 형을 제끼고 먼저 가는 군대였기에 우리 집안에서는 처음 맞이해 보는 영장이었다. 그러하기에 부모님과 온가족들은 어떻게 대응을 할 지 전혀 몰라 전전긍긍했고, 나는 나대로 미쳐서 날뛰

었다. 약 한 달간의 시간이 그토록 짧으면서도 길게 사람을 처절하리만치 괴롭힐 수 있음을 실감했던 시기이다. 얼마나 우셨는지 엄마의 눈두덩은 항시 부어 있었다.

입대를 일주일쯤 남긴 어느날 아버지는 선우휘씨의 '아버지의 눈물'이라는 수필집을 한권 내게 주셨다. 평소에도 책을 좋아하시는 아버지이셨기에 별 의미없이 일상적인 독서권유로써 받아 들였다. 하긴 그때 나의 심리상태가 아버지의 의미를 파악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첫휴가/ 입대한 지 열 달만에 겨우겨우 찾아 먹는, 군발이의 헌법인 육군규정이 보장하는 정규휴가인데, 태권도 급증을 못땄다하여 '휴가취소니 뭐니'하는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를 늘어놓는 어려운 와중에도 나는 꾸역꾸역 첫휴가를 찾아 먹었다. 음주했다 뛰는 개구리가 멀리 뛰듯이 보름간의 첫휴가는 '본능에 내맡긴 광란의 낮과 밤' 바로 그 자체였다.

어느덧 귀대. 정말 죽기보다도 싫었다. 형장에 끌려가는 무고한 사형수의 심정을 이해했다면 너무 과장일까? 최우선간 그러한 심정으로 귀대하는 날 아침을 집에서 보내다가 아버지의 책더미 속에서 낯익은 책 한 권이 있어 꺼내 보니 입대전 아버지가 주셨던 '아버지의 눈물'이라는 책이었다. 무심코 몇 장을 들추다 보니 편지지같은 종이가 한 장 끼어 있었다. 그것은 내가 입대한 뒤 일주일 뒤에 아버지가 논산땅을 다녀 가시면서 적어 놓으신 그날의 궤적이었다. 어느새 그 편지지는 흥건히 젖어 있었고, 나의 시야는 몹시도 짙은 안개 속에 고정되어 있었던 듯하다.

강원도에 있는 부대까지 가기 위해서 탔던 다섯 시간동안의 고속버스여행은 아마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버지에 대해서 진정으로 감사한 마음과 죄스러움에 감사드리고 참회를 했던 시간이었을 것이다. 푹 눌러쓴 모자 밑으로 계속해서 눈물이 흘러 내렸다. 그 떨어지는 눈물에 아롱아롱 맺혀지는 영상들은, 영장을 받은 날로부터 약 한 달간을 눈물로 지새우신 엄마의 부어 오른 눈두덩과 그때는 잘 못느꼈으나 평상시보다 말씀이 적어지셨고, 우울해 보이시는 것 같던 모습으로 책을 건네 주시던 아빠의 얼굴……. 도대체 얼마나 못견디셨기에 무슨 생각을 하시면서 홀로 이심여 년만에 논산땅을 밟으셨을까?

며칠 있으면 군대에 간다고 찾아 온 후배의 넋두리 '신의 아들, 장군의 아들, 사람의 아들, 나는 아들의 자식.' 똑같지는 않았겠지만 오 년전 아마 나도 이와 비슷한 심정의 말들을 각혈하듯 내뱉고 다녔을 것이다. 그러나 현역이라고 해서 그 후배나 나나 결코 '어들의 자식'이 아니다. 결코 '어들의 자식'이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그것은 아내와 자식들 몰래 숨어서 가슴 저미는 고통을 숨죽인 호느낌으로, 보일듯 말듯한 어깨의 떨림으로 참아내셔야만 하는 이 땅의 너무나도 많은 '아버지'들의 가슴을 무너뜨리고 심장을 도려내는, 억만 접의 윤회로도 씻을 수 없는 죄악이며 처절한 배신이다.

오늘도 엄청 더웠다. 가히 병적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더위와 갈증의 악몽에서 시달렸다. 너무나도 시달려 '이럴치열'이나 해보자는 심정으로 군대에서의 혼적들을 모아 두었던 상자를 책상 밑 귀퉁이에서 끄집어 내어 정면숭부를 걸던 중 발견한 빛바랜 종이 한장.

더위와 갈증은 어디를 갔나? 이제는 서늘하다. 너무나 거대한 사랑으로 나를 감싸주시는 아버지의 버거운, 가슴 벅찬 사랑에 서늘하다 못해 그저 먹먹할 뿐이다.

해마다 9월 2일은 돌아온다. 그 날이 오면 나는 87년이래 언제나 그랬듯이 더위와 갈증에 허덕일 것이다. 그리고는 적어도 일년에 한 번씩 일상속에서 너무나 거대하기에 느끼지 못했던 아버지의 사랑을 빛바랜 종이 속에서 새삼 확인하고 아버지에 대한 나의 사랑도 재충전할 것이다.

'어머니'들의 섬세한 사랑에 비해 투박하기 그지없는 '아버지'들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이 '뚝배기 안에 담긴 장 맛'이라면 아버지의 사랑은 그 '장 맛을 은은히 우려내 주시는 뚝배기 맛'일 것이다.

도대체 그 '장 맛을 은은히 우려 내주시는 뚝배기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일까? 무슨 생각을 하시면서 홀로 이십여 년만에 논산땅을 밟으셨을까?

1987. 9. 6. 일요일

들쳐가 입대한 논산훈련 가고 싶은 생각으로…… 아침 9시에 집을 나섰다.

고속버스터미널에서 10시에 출발하는 연무대행을 탔다. 날씨는 그리 맑은 편은 아니나 비는 아니 올 것 같았다. 차 타기전 주간지 신문을 1부 사서 가지고는 있으나, 읽고 싶은 생각보다는 차창너머 펼쳐지는 들녘풍경을 보고 싶은 생각으로 왕복 5시간을… 창밖을 내다보며, 또 이 생각 저 생각으로 여행(?)을 때웠다.

오늘 연무대를 다녀오게 된 동기는 사실 객관성은(?) 없다. 9월 2일 입대한 들쳐가 있는 곳이라서 가기는 가지만… 훈련중에는 면회가 없으며 소속도 모르는 처지니 꼭 들쳐 때문은 아니고, 평소에 어떠 훈련 다녀 왔으면 하는 내 속마음 탓이며, 사실은 '내가 군입대 훈련 받은 논산땅을 가보았으면'하고 막연히 상상하던 것이 오늘의 발길을 논산으로 돌리는 여러 이유중의 하나일 테다. 또 들쳐가(얘기가) 있는 곳엔 그렇게 마음이 쓰여지는 심약한 애비의 심사도 이유중의 하나다.

일상속에서 너무나 거대하기에 느끼지 못했던 아버지의 사랑을 빛바랜 종이속에서 새삼 확인하고 아버지에 대한 나의 사랑도 재충전할 것이다.

부모가 생각하는 자식이 뭔지… 전연 객관성이 없는 이참을 수 없는 심정. 남들은 일러 빈정대고 말 부질없는 소치로 6주간을 보냈던 논산훈련소의 윤곽은 기억도 없고, 생소하기만 한데… 택시차창 넘어 보이는 '연무곧'이라는 곳이 그당시 소론부쿠팡일 것으로 어림하고… 군병원…일소대대의 정문표시가, 병영(兵營)입을 알리고 있는데 약 5킬로미터정도 가서 되돌아 오는 것으로 오늘 목적은 끝을 보았다.

여담으로 택시운전기사와 나눈 대화 몇 마디… 80년 논산훈련소 입대, 작년 9월 논산에서 8년간 근무하고 제대해 그땅에서 개인택시 면허받고 영업한다고… 요즘 훈병들은 일고생없다며 자신의 훈련기간중에 고생, 어려움 보다는 편하고 좋아졌다는 식으로 훈병아비지의 마음을 위안(?)시켜 준다.

내 생각도 그리려니 하면서 얼적게 택시에서 내려서 1시에 서울 가는 버스를 타고 보니 아침에 타고간 버스에 다시 타고 오는 셈이다.

12시 30분 도착, 10분 대방에서 담배 한 대, 커피 한 잔, 10분간 택시 타고 훈련소 정문쯤 다녀오고 1시에 서울행 버스가 출발…. 5시간 차 타고 30분 그 곳에 머물다 온 것이 전부가 되었다. 들쳐야/ 아빠는 이렇게 너의 곁을 다녀 간다.

들녘에는 나무잎새의 한여름 진한 녹음빛은 바래지고 조촐한 푸른 빛을 띠고 있다. 논밭벼는 노란 빛을 약간씩 띠고 있다. 지금 보는 논밭 벼를 그림으로 옮겨 놓으면 그 색깔로 해서 초가을 계절을 넌즈시 나타내겠지. 그림 솜씨가 없는 처지가 약간은 아쉽다.

벼 익은 색깔을 두고 시인은 글로, 화가는 그림으로써 표현을 할테지만 글, 그림 다 재주없는 여행객은 마음에나 새겨 두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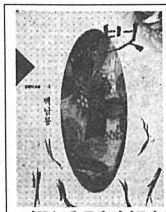
오늘 내 행적은 아무래도 싱거운 사람 짓뿐이다(?)

이 치 한

〈동양·중국어4〉

□서평—백남릉의 〈벗〉

북녘의 따뜻한 삶의 이야기



가끔은 내 주위 사람들과 부대끼며 사는 것이 못견디게 힘들어질 때가 있다. 진정한 관심을 느끼지 못하고 따뜻한 사랑을 주고 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우리는 서로에게 실망하고 가슴 아파 하기도 한다.

요즘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그래서인지 몰라도, '벗'을 읽고 나서는 무엇보다도 사람 사이의 '따뜻함'이 가슴에 깊이 와 닿았다.

이 소설은 참 따뜻한 이야기이다.

채순희와 리석춘 부부의 이혼 소송이 주된 이야기지만, 자본주의 사회의 개인주의 가치관에 찌들대로 찌들어있는 우리의 가슴을 몽롱하게 해주는 것은 이 소송을 담당한 정진우라는 판사의 헌신적인 성실성이다.

그는 고산지대에서 연구사업을 하느라 거의 가정을 돌보지 못하는 아내를 오십고개에 이르도록 묵묵히 뒷바라지하며 주부의 역할까지 다해내고, 리석춘의 연구를 위해 찬 강에 들어가 모래를 퍼다 주기도 한다. 이혼소송 하나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그의 모습은 이 사회에서는 어쩌면 비정상적인(?) 모습으로 보일지도 모르겠다. 다른 북한 소설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북한 사회의 생활과 인간관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러한 성격은 너무도 작위적이고 비현실적인 것으로 보이기 십상이다. 물론 정진우는 북한 사회의 새로운 인민의 '벗'으로 설정된 가상의 인물이다. 삶의 원리원칙을 지키는 속에서도 적절한 융통성을 발휘하며, 인민의 관료로서 인민에게 절대적으로 헌신할 뿐만아니라 '인간의 사랑이 살고 미래가 자라는 아름다운 사회'인 가정에도 또한 헌신적이다.

어찌 보면 매우 단순해 보일 수 있는 소설이지만 작가 백남릉은 정진우를 통해 매우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혼'의 문제를 단순히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정치적인 문제로 인식하기에, 채순희와 리석춘 부부의 갈등을 푸는 데도 정진우가 그 부부의 직장과 동료·가정들을 일일이 찾아가 사람들을 만나 보며 사건을 해결하려 한다. 이 과정에서 채순희의 6촌 처남, 석춘의 직장 선배인 기능공 아바이 등은 북한의 관료주의를 비판하는 소재가 되고, 정진우와 한은옥 부부의 사랑과 정진우가 이혼 관결을 내렸던 부부의 이야기, 채순희와 리석춘 부부의 이야기는 사회 속에서 진정한 사랑을 어떻게 구현해 나가야 하는가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해 준다.

특히 여기에는 몇 가지의 연애가 등장하는데, 청춘 남녀가 동지로서 처음 만나고 사랑하고 결혼에 이르는 과정은 어느 사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아름답게 펼쳐지고 있다. 학창 시절 정진우의 연구 논문 발표장에서 서로의 비판자로서 만나게 될 한은옥, 직장 동료로서 만나게 된 채순희와 리석춘의 연애과정을 묘사한 부분은 어느 남한 소설못지않게 섬세하고 가슴 떨리게 쓰여져 있다. 한편 정진우가 6년 전에 이혼시킨 한 부부의 경우처럼, 산골에서 나무를 키우며 남편을 대학에 보내 졸업시키자. 인텔리 남편이 촌아낙에 불과한 자기 아내를 매정하게 버리는 장면도 나온다. 또 그 자녀가 계모밑에서 학대를 받으며 비뚤게 커가는 모습도 가슴 아프게 묘사되고 있다.

새삼스럽지만 이러한 곳곳에서 느끼는 감정은 '사람이 살고 있었네'라는 느낌, 바로 그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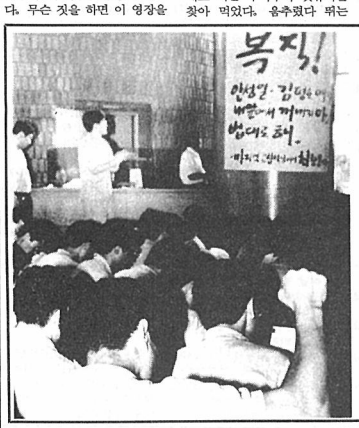
'북한소설'이라면 왠지 판에 박힌 것 같다는 선입견을 은연중에 갖게 되지만, 이 소설은 결말 부분도 의외이다. 도예슬단 가수인 아내의 남편에 대한 지적 바램을 이해하지 못하는 리석춘에게 정진우는 이렇게 말한다.

"난 판사로서보다 나이 많은 벗으로서 충고하고 싶소…. 지식과 기술을 소유한 멋쟁이 기능공 청년답게 외모에서부터 쭉 빼고 다니오. 공장대학에도 가고…. 이런 것을 생활에서 걸치레로 여기는 건 수치요. 그런 보수성과 결별하시오".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 그것을 어떻게 아름답게 조화시키고 꾸미는가에 많은 관심을 갖는 여러 사람들의 모습은 잔잔한 감동으로 다가온다. 북녘의 따뜻한 삶의 이야기는 오랫만에 느끼는 포근함이었다.

신 수 진

〈서양·영어3〉



파수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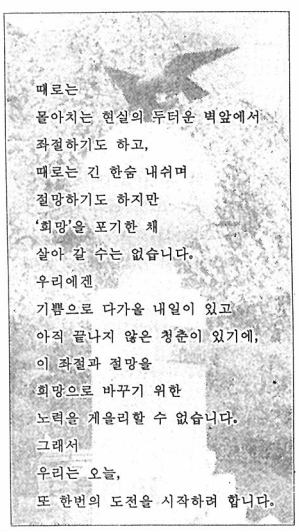
펜을 놓고
주먹을 불끈
쥔 까닭은?

지난 9월1일부터 무기한
전면파업에 들어간 MBC
노조

〈강인숙 특파기자〉

제10회 외대학술상·제30회 외대문학상 작품 모집

진리를 갈구하는 그대의 모습은 아름답습니다



제10회 외대학술상

응모자격:본교 재학생

모집분야: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등
3개 부문(원고 80매 내외)

심사위원 및 상금:추후 발표

제출처:외대학보 학생기자실(서울:학생회관 203호,
용인:학생회관 212호)

마감일:11월10일(화)

※제출된 원고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제30회 외대문학상

응모자격:본교 재학생

모집분야:시(3편이상)
소설·평론·희곡·번역(원고 70매 내외)

심사위원 및 상금:추후 발표

제출처:외대학보 학생기자실(서울:학생회관 203호,
용인:학생회관 212호)

마감일:11월10일(화)

※순수창작품에 한하며 제출된 원고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외 대 학 보